

2
2020

VOL. 284

한인뉴스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百年顧客



hotelfacilities



Java Palace Hotel

Jl. Niaga Utara Kav. 1-2
Jababeka II
Cikarang - Jawa Barat
17530 Indonesia
reservation@palacejava.com

Telp: (62-21) 29281111

Fax: (62-21) 29287300

✉ : info@palace.co.id

Benefit

혜택
고주몽을 포함한 자바팔레스호텔 내 식음료 할인
• 15% 할인 주류 포함
자바팔레스호텔 스파
• 마사지 20% 할인
자바팔레스호텔 골프 연습장
• 일반 가격에서 30% 할인
자바팔레스호텔 헬스장, 사우나, 스파 시설
• 1년간 무료 이용

자바팔레스호텔 객실
• 무료 숙박권 3매 (주말, Superior Room, 조식 2인 포함)
• 숙박 50% 할인권 2매 (주말, All Room type)
• 숙박 20% 할인권 6매 (주중 포함, All Room type)
Seruni Coffee Shop
• 생일 당일 무료 생일 케이크 제공 (사전 예약 필요)

Annual Fee
IDR. 4,500,000 nett

JOIN NOW

0001

privilege

Richard Chu Member 8/15 Valid

온 가족의 청정 라이프 웅진코웨이로 시작하세요

OMBAK CHP-7310R

냉온 RO 정수기
월 Rp. 500,000 / 36개월

제품 · 서비스 · 가격 문의

☎ (021) 5086 0419
☎ 0812 8825 6357
✉ cowayid@coway.id
📱 coway_id



STORM AP-1516D

15 평형 공기청정기
월 Rp. 270,000 / 36개월

대한민국 NO.1 브랜드¹⁾
코웨이를 인도네시아²⁾에서도 만나보세요.

한국산업 브랜드 파워 1위
✓ 정수기 부문 21년 연속 1위
✓ 공기청정기 부문 17년 연속 1위



36개월³⁾ 동안
한 잔의 물, 한 숨의 공기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 2개월 1회 방문 서비스
✓ 제품 설치 · 위생 관리 서비스
✓ 필터 교체 · AS 서비스

heart
service

건강한 삶을 설계하는
코웨이 헬스플래너,
한국인 판매인을 모집합니다.

헬스플래너 지원 문의
✓ cowayid@coway.id
✓ (021) 5086 0419



※ 1) 21년 연속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1위 2) Jakarta, Bogor, Depok, Tangerang, Bekasi 지역 한정 판매 3) PACKAGE 36 가격제도



문화회관 - 나를 위한, 나만의 공간

아담하고 쾌적한 공간!

평소에 읽고 싶었던 좋은 책들과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한인회 문화회관을
나만의 독서실로 이용하세요.

시청각실과 소규모 모임을 위한 장소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용안내

시 간

월~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대 상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회원 가입은 한인회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대 여

1. 회원증 사본 제출
2. 1인당 도서 2권, 7일간
 - 1회에 한하여 7일간 전화로 연기 가능
 - 연체 시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 당 1,000루피아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Pioneering Exploration and Production of
Oil and Gas in West Madura Offshore
Since 1981



대한민국 해외자원개발의 선구자!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유전개발 업체로
인도네시아 마두라광구 탐사,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KODECO ENERGY

Talavera Office Park 10th fl. Jl. Letjen TB Simatupang No. 22-26
Jakarta 12430 T +62 21 2765 1559 E admin@kodeco.co



Hujan di Jakarta

contents

2020. 02. 통권 284호

- 07 인도네시아 라이프 No.2 <황유경>
- 08 김문환논설위원 칼럼- 군납의 시작
- 11 신성철칼럼-인도네시아 속 한국신발산업
- 14 한인들은 어떻게 살아왔나(4) <조연숙>
- 18 신년인사회
- 20 기획탐방 5 스마랑 편<사공경>
- 25 2020년 제1차 회장단 회의
- 26 이코노미 인사이드 <황준규>
- 28 꽃청춘 프로젝트 2탄 <김승욱>
- 30 배동선 작가의 인도네시아 현대사-반란의 시대
- 34 뉴스브리핑 <자타르타 경제신문>
- 38 자카르타 맛집탐방 <주윤지>
- 40 나 바 수 <민선희>
- 44 행복에세이 <하연수>
- 48 경자년, 뱀띠가 이루고 싶은 것은? <김다현>
- 53 JIKS 소식
- 54 인도네시아 법률 해설(282) <이승민>
- 56 인도네시아 정치의 다이나믹스 <이혜자>
- 56 JIKS 소식
- 57 2019 한인청년회 & 옥타차세대 송년의 밤
- 58 박물관 헤리티지 <이수진>
- 61 A SYTAR IS BORN <남혜임>
- 62 코린도, 제 1회 보고르 도시숲 조성
- 64 전통놀이 율 <홍사열>
- 67 Pancoran 사람들 No.14 <편집국>
- 70 생활정보

월간 한인뉴스 2 2020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김문환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수진, 이영미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삼월이의 #인도네시아 라이프 No.2

삼월이 한국 알리기

직스를 비롯한 인도네시아의 여러 국제학교에서는 해마다 다채로운 행사를 열립니다. 학부모들도 참석하는 '인터네셔널데이' 행사에는 출신국가별로 부스를 차려 입고 손수 만든 전통 음식을 판매합니다. 이날 만큼은 '학부모'가 아닌 '한국문화 홍보 대사'가 되어 행사를 주도합니다. 한국의 '학부모 참여 수업'과 비슷하죠? 이번에 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새해를 맞이하여 모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알리는 중요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접시당 10,000Rp 정도에 판매된 떡국과 김치전 판매 수익금은 학교나 고아원에 기증합니다.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세 개 부스에 모인 학부모 백여 명과 선생님, 학생들의 웃음으로 구내 식당이 가득찼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 엄마들이 치른 행사지만 이루어낸 결실은 소박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인기 있었던 음식은 뭐니뭐니해도 '한국인의 손맛'이 깃든 사골 떡국과 김치전. 준비된 음식은 국물 한 방울, 반죽 한 국자까지 모두 소진되었고 다른 나라 학부모들에게 엄지척 세례를 받았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엄마들이 입은 한복 또한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방문객들은 한국미(韓國美)를 감탄하며 사진 촬영 요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시작은 작은 학교 행사였지만, 엄마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한 단계 올린 보람된 하루였습니다.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타국 땅에서 살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고 살아야겠습니다.

글_ 황유경 (버카시거주 / 삼월공작소 운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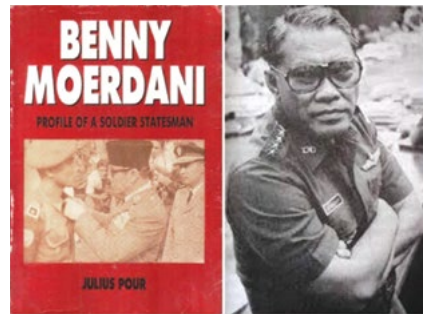




군납(軍納)의 시작



김 문 환/논설위원



1970년대 중반 정부는 수출드라이브 정책의 일환으로 종합상사(綜合商社) 제도를 입법화하였는데 그 시행단계로 1975년 5월에 삼성물산, 대우실업, (주)쌍용이 각각 국내종합상사 제1호, 2호, 3호로 지정되었고, 그 뒤를 이어 1978년까지 총 13개의 상사가 등록되었다. 이들 상사들은 세제, 금융상의 혜택을 받아가며 IMF사태 직후 한때에는 대한민국 총무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역할이 지대하였으나 지금은 6~7% 선으로 급격히 줄어들어 자원개발, 신규사업 개척을 위한 ‘자원 전문상사’로 탈바꿈하고 있다. 종합상사들은 해외지사 설치 조건에 따라 대부분 상사가 자카르타에도 지사를 운영하였는데 개점휴업 상태에서 파리만 날리던 상사들이 처음으로 대형프로젝트를 수주한 경우가 바로 아직 전운이 걷히지 않던 동티모르 군납 프로젝트였다.

1975년 11월 28일 좌익정파인 후레틸린이 ‘동 티모르 민주공화국(Republik Demokrasi Timor Timur)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자비엘 아마랄(Xavier do Amaral)을 대통령에 추대하여 정세가 극한 상황으로 치닫자 포르투갈 정부는 무책임하게 ‘불개입 원칙’을 선언하고 자국 군대를 인근 아따우로(Atauro) 섬으로 철수시켜 버렸다.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후레틸린 좌익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당시 포르투갈은 NATO에 가입되어 서방동맹국으로부터 최신무기를 배당 받아 이 중 일부가 이미 동티모르에도 흘러 들어가 포르투갈 군이 남기고 간 이 신무기로 무장한 후레틸린은 월등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후레틸린이 독립정부를 선포한 지 이틀 후인 11월 30일 친정부 4개 정파 대표들은 발리보(Balibo)에 모여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로 통합한다.”는 합방선언문(Proklamasi Integrasi)을 채택하였다.

1975년 12월 5일 밤 자카르타 쟌다나(Cendana) 대통령 관저에서 정부 최고수뇌부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수하르토 대통령을 비롯하여 아담 말릭 외무부 장관, 마수리 공보부 장관, 수다르모노 대통령 비서실장, 요가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국방부 정보차장인 베니 준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친 인도네시아 정파 지도자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장래가 결정될 수 있도록 후레틸린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군사작전의 원칙이 의결되었다.

같은 날 캔버라의 호주 수상 Gough Whitlam이 “인도네시아만이 이 지역의 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묵시적인 지지를 보내왔다. 포드 대통령과 키신저 국무장관이 자카르타를 방문한 다음날인 12월 7일 새벽, 국군의 총공격이 개시되었다. 해상으로부터는 인도네시아 해군의 함포사격이 개시된 후 해병대가 상륙하였으며 전략사령부의 1개 대대는 딜리(Dili) 상공에 낙하하였다. 딜리가 함락된 지 10일 후 친정부 정파에 의한 임시정부가 발표되었다.



1975년 정부기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판문점을 둘러본 베니 무르다니 국방부정보국장(왼쪽)과 요가 수고모 국가정보원장(BAKIN)

1976년 5월 31일 동티모르 임시정부 국민위원회(Dewan Rakyat Pemerintahan Sementara Timor Timur)는 1975년 11월 30일자 ‘통합선언서’의 내용을 재확인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인도네시아 정부에 합방하겠다는 청원서를 제출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년 7월 16일 이 청원서를 수용하여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제27번째 주로 편입되었으며 후레틸린을 상대로 격렬히 저항했던 아르날도(Arnaldo)가 초대 주지사로 취임하였다.

인도네시아 속 한국 신발산업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한인사 편찬위원

[편집자주] 이 글은 ‘인도네시아 한인100년사’에 기록될 사료로 사용됩니다. 한인뉴스 애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글을 읽어보시고 추가로 넣을 부분이 있으면 한인뉴스(haninnewsinni@gmail.com)와 글쓴이(dailyindo@gmail.com)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동띠모르를 무력으로 병합한 후 저항세력들은 게릴라전으로 대응하게 된다. 증강되는 병사들의 군수품 소요가 계속 늘어나자 동띠모르 작전의 기획자인 베니 장군은 한국 재임 시 보아왔던 기억을 되살려 필요한 군수물자를 한국에 발주하기로 결정한다. 베니장군은 주재 한국공관을 창구로 삼아 자재 긴급 조달을 요청한다. 베니 장군의 발주를 받은 공관은 기 진출해 있던 종합상사 중 특별히 신뢰가 가는 H물산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추천한다. 이로써 H물산은 1970년대 말 인도네시아 군납 역사의 첫 테이프를 끊은 기업으로 기록되게 된다. 전이나 다름없는 비상사태 하에서 H물산이 수의계약으로 따낸 품목은 주로 정글부스, 판초, 야전점퍼, 방풍모자, 자켓 등이었으며 개설된 신용장 금액이 미화 1,100만불에 달할 정도의 큰 거래였다. 이 품목들은 동띠모르 무력합병이 성공한 데 대한 대통령 하사품 명목이었다. H물산은 물자 긴급수송을 위해 대한항공 여객기 4대를 차터하여 내부공간을 화물기로 개조하여 할렘공항을 통해 입항하였다. 그중 긴급물자 2대분은 직접 딜리까지 운송되었으며, 나머지 2대분은 판중쁘리옥항에서 선박편으로 환적되었다. 이때 긴급수송작전을 쫓던 대한항공 담당자는 이미 고인이 된 고광국 주재원이었다.

동띠모르 군납프로젝트가 성공하자 그동안 인도네시아 사업을 등한히 하던 종합상사들이 1980년대 들어 이를 악물고 텃비기 시작했다. 제3공화국 실권자의 실형(實兄)이 사주로 있던 코리아 타코마(한진중공업에 합병)라는 조선사가 전차상륙함(LST) 6척을 인도네시아 해군에 납품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이 수주전은 한국, 인도네시아가 수교하기 직전인 1965년부터 이곳에 입국하여 국교 수교의 첨병역할을 담당할 적이 있던 기관원 출신 K씨가 상기사 사주에게 건의하여 추진한 과감한 시도였다. 이 수주 성사를 위해선 당시 수하르토 정권의 군부 실권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난제였다. 이미 오래전에 이곳에 진출하여 군부를 포함한 정부 고위층에 인맥을 구축하고 있던 K그룹 C회장의 지원사격이 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C 회장은 베니 장군을 찾아 뵙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자신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일으킨 업종이 산림, 원유와 같은 자원사업이었고, 이는 모두 양국간에 맺은 의정서에 의해 사업을 진행하여 왔던 것처럼 군납사업도 국가적 차원의 거래이다 보니 베니 장군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간청하였다. 결국 베니 장군의 후원에 의해 전차상륙함 수주 프로젝트는 성사되었고,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사후관리와 인적교류가 지속되었다. 이와 같이 난관에 봉착한 한국기업의 출구는 거의 ‘베니 장군으로 통하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신발산업 가운데 스포츠화의 경우 1970년대까지는 일본이, 1980~1990년대 초까지는 한국이, 1990년대 이후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중국이 전 세계 공장 역할을 맡고 있다. 1980년대 후반기 한국사회 민주화에 따른 노동쟁의 증가, 가파른 원화 절상 및 임금상승에 따른 제조비용 상승으로 채산성이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국내 노동집약형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을 모색하게 됐고, 대상지로 동남아와 중국이 부상했다.

당시 한국과 대만의 신발제조업체들이 대거 동남아와 중국 등지로 생산기지를 이전시킨 배경에는 나이키, 리복,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의 빅바이어들이자 브랜드 마케팅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인 동남아와 중국 등으로 OEM(주문자상표 부착 생산) 수입선을 대거 전환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1990년 전후 한국의 중소자본이 가장 선호한 투자대상국으로, 짧은 기간 동안 노동집약적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이 ‘최초이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 후반 당시에 우리나라는 중국과 베트남과 정식 수교 이전 시기였던 만큼 부산에 밀집되었던 한국 신발제조업체들이 초기 이전을 고려한 국가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원목개발과 합판제조, 건설 등 한국 기업들이 이미 현지에 진출해 있었던 터라 인도네시아 투자는 진출에 따른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

1985년부터 인도네시아 금융위기인 1998년까지 초창기 진출 기업:

우리나라 신발제조업체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1985년 코린도그룹 자회사인 가루다(PT. Garuda Indawa)가 첫 테이프를 끊었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 프라타마(PT. Pratama Abadi Industri), 동양(PT. Tongyang Indonesia), 동조(PT. Dong Joe Indonesia), 태화(PT Tae Hwa Indonesia) 스타윈(PT. Starwin Indonesia), 도손(PT Doson Indonesia), 코리네시아(PT Korinesia), 금강제화 등이 대규모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OEM 방식의 생산 체제를 구축했다.

1990년대 초반 글로벌 신규 투자처로 중국과 베트남이 부상하면서 글로벌 신발산업에 지각변동이 일어났고, 인도네시아 신발업체가 어려움에 직면한다. 었친 데 덮친 격으로 1993년 이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인상율이 연간 10%를 상회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비 절감 효과가 낮아진 동시에 한국에서 더 가까운 중국과 베트남이 대안 생산기지로 부상했다. 하지만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계기로 중국의 생산원가가 급속도로 인상되면서 중국으로 진출했던 한국계 기업 중 일부는 한국으로 U-턴하거나 인도네시아로 재이전하기도 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계 신발제조 투자기업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반뜬 주 땅그랑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땅그랑



은 수도권 대표적 한인 집중 거주지로 부상했고, 신발회사 직원들의 소비는 땅그랑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과 베트남이 새로운 생산기지로 부상하였고,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인도네시아 사회경제적 혼란은 과거 관행에 익숙했던 대부분의 한국계 신발기업의 존속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1세대로 분류될 수 있는 인도네시아 내 한인 신발기업인 가루다, 동조, 스타윈, 코리네시아, 태화 등이 2005년을 전후하여 폐업 절차를 밟는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신발산업이 2005년 파크랜드(PT Parkland World Indonesia)의 풍원제화 인수를 계기로 현지 한국 신발제조업체가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이어 창신(PT Chang Shin Indonesia)과 태광(PT Tae Industrial Indonesia) 등 대규모 한국 신발기업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신발업체가 제 2의 도약기를 맞는다.

인도네시아 진출 초창기 우리 기업들은 반딧판 땅그랑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식 대량생산 제조라인이 설치됨에 따라 OEM 방식의 유명 브랜드 주

문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지에서 직접 경영방식을 채택한 우리 신발기업은 해외투자 경험 이 없었고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현지 노동자들과 갈등과 마찰을 빚어 적지 않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도 했고, 이는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와 인도네시아 진출에 큰 교훈이 됐다.

2004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집권 후 인도네시아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고 대외여건이 변화하면서 제조업이 회복하기 시작했고, 재인니한국상공회의소(Kocham)와 재인니한국신발산업협의회(KOFA)를 중심으로 다시 반등의 기회를 마련했다. 최근 자바섬 내 최저임금 차별화의 이점과 조코 위도도 정부(2014~2024년)의 국토 균형 발전 정책에 부응하여 중부 자바주 주도 스마랑 주변의 즈빠라 지역과 살라띠가, 브레베스 등지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있다. 2016년 이후 한국계 신발업체의 인도네시아 내 이동(반딧판주에서 중부자바 또는 서부자바 외곽지역)이 가속화돼 화승, 파크랜드, KMK, 프라타마, 창신, 태광 등 대기업들이 이러한 대이동을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내 한국계 신발업체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생산시스템을 자동화하는 장치산업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인도네시아 스포츠화 제조업이 다시 활력을 찾을 무렵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KOFA)가 설립되어, 2009년 11월 초대 회장으로 송창근 KMK 그룹 회장을 선임했다. 이어 제 2기 송창근 회장(2012~2013), 3기 신만기 회장(파크랜드, 2014~2015), 4기 신만기 회장(2016~2017), 5기 신만기 회장(2018~2019) 그리고 6기 이종윤 회장(프라타마 그룹 PT. SMI, 2020 현재)이 바통을 이어 받았다.

2020년 현재 KOFA는 신발제조회사 20여개 회원사와 자재 및 임가공 회원사 180여개 등 총 200여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회원사는 한국인 근로자 2천여명과 현지인 근로자 25만여명을 고용해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식스 등 글로벌 브랜드 제품을 연간 1억3천200만 켤레, 총 35억 달러 매출액을 기록해 인도네시아 수출실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KOFA는 현지에서 회원사의 비즈니스 활동 외에도 △회원사의 권익 보호 및 정보 공유 △최저임금 관련 협의 및 대책 수립 △KOFA 소식지인 ‘코파의 힘’ 및 연간 통합본 발행 △현지 빈곤층 지원과 재해 시 성금 및 생필품 지원 등 지역사회 봉사 △신발 관련 전시회, 세미나 참관 및 주최 △



코파 총회 개최 등 다양한 활약을 통해 회원사는 물론 지역사회에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 동남아국가 현지 인건비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산업 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해외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운영 중인 기업들은 생산비 증가와 경영한계에 직면했다. 다른 한편 로봇 및 3D 스캐닝 및 프린팅 기술의 혁신 및 도입속도가 빨라지면서 신발산업 내에서 고기능·고품질 제품군들은 기술 수준이 높고 시장이 가까운 본국으로 유턴하는 경향도 보였다. 하지만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인 아디다스가 ‘4차산업혁명 교과서’로 평가돼 온 독일·미국 내 스피드 팩토리(Speed Factory)를 2020년 4월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본사가 위치한 독일로 생산시설을 유턴한 지 불과 3년 만이다. 다만 독일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는 독일 안스바흐의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 사례나 최근 중국에서 부산으로 유턴하는 한국기업들의 사례는 신발산업의 미래 역동성이 얼마나 크며 이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신발산업은 제3의 도약기를 맞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신발 브랜드들의 중국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생산과 소비 중심지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급부상하고 있는 시점에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은 자동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의 신발산업을 준비하고 있다. (끝)

참고문헌

‘코파의 힘’, 재인니한국신발협의회 정기 간행물
엄은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신발산업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와 한인기업공동체의 공간 전략’
뉴스미디어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한인들은 어떻게 살아왔나(4)

기억하라 1999: 혼란과 변화의 시기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국장, 한인사 편찬위원)

[편집자 주] <인도네시아 한인들은 어떻게 살아왔나 4>는 한인뉴스 1999년 1월호부터 12월호까지 12권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1999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 활발했지만 지금은 없어진 단체와 활동을 기록했고, 2020년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아직 설립되지 않았던 단체와 활동은 앞으로 2009년과 2019년 기준으로 쓰는 글에 기록하겠습니다. 이번 글에 언급된 단체나 활동과 관련해 추가하고 싶은 사진이나 자료를 가지고 계신 독자 여러분은 한인뉴스(haninnewsinni@gmail.com)와 글쓴이(dailyindo@gmail.com)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1998년 5월 폭동과 수하르토 실각 등을 겪으면서 극심한 혼란기를 맞았고, 1999년 인도네시아 총선과 대선 그리고 동티모르 독립 등이 진행되면서 인도네시아인과 한국인들 모두 긴장을 놓지 못하고 살았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던 한국인들이 1997년과 1998년 사이에 외환위기 영향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하고 귀국해 한인수가 줄어들었던 한편, 봉제와 신발 등 일부 제조업이 활발해지고 국가 간 교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한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요동치는 환율, 급등하는 물가, 빈번한 정치집회와 민중시위, 홍수와 지진 같은 자연재해, 동티모르 독립에 대한 인도네시아 한인과 한국 정부의 입장 차이와 파병 등 사안은 인도네시아 시사뉴스와 한인소식에 대한 갈증을 키웠다. 여기에 항공 교통 발달과 세계화에 따른 인적교류 증가, 이동통신과 인터넷 발달에 따른 국내외 뉴스와 정보 교류 등은 다양한 한인 미디어 출현으로 이어졌다.

1999년에는 SIMI(대표 안선근), 자카르타경제동향(대표 김정규), 데일리인도네시아(대표 신성철) 등 한인 뉴스미디어가 순차적으로 나왔다. 한

인업소 증가와 한인소비시장 성장에 따라 교민세계, 소망, 벼룩시장 등 광고지도 나왔다. 앞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가 1996년에 한인뉴스를 창간했다. 한국인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초기 정착기를 지나서 한인공동체가 성숙해지던 시기에, 급변하는 인도네시아 상황에 따른 공동대응에 대한



요구도 더해져 한인회의 능동적인 활동이 요구됐다. 한인뉴스 보도는 개인차원에서 알음알음 활동하던 한인모임을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했고, 이렇게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단체가 출범하게 된다.

1999년은 한국 텔레비전 방송이 교민들 안방으로 들어온 시기이다. 한국을 알리는 영어방송인 아리랑TV가 인도네시아에 방영되기 시작했고, 교민들은 파라볼라 안테나를 설치하거나 지역유선방송국에 가입해서 시청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교민이 설립한 아시아 비전(PT Asia Vision)이 운영하는 KTV21은 KBS, MBC, SBS 등 한국 메이저 방송국의 뉴스와 드라마뿐만 아니라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케이블 방송 네트워크를 통해 송출했다. 또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해 다소 벼퍼링이 있었지만 방송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원하는 방송을 볼 수 있었다. 이전에



한인뉴스 제 31호 (1999. 1월호 중)

는 비디오대여점에서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와 뉴스도 비디오테입으로 빌려서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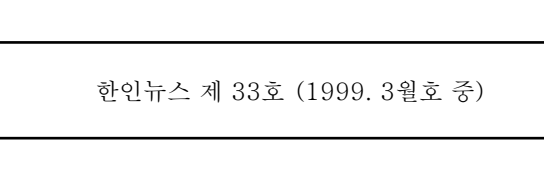
인도네시아에서 혼란기를 살았던 한국인을 포함해 외국인들은 1998년 5월 사태를 경험한 뒤 정치시위가 소요사태로 변질 것을 우려했고, 현지인을 자극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기 위해 노력했다. 1999년 1월호 신년사에서 승은호 당시 한인회장은 군중 데모와 폭동이 우려된다고 한인들에게 “△무엇보다 주위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해야 합니다. △위험지역 출입을 삼가고 사치스런 소비생활을 지양하며 검소한 생활과 복장을 하도록 당부합니다. △대사관과 한인회가 공동수립, 1998년 11월에 배포한 ‘동포 신변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과 한인회와 긴밀히 연락해서 정세 변화에 대한 대사관 정보와 전달 사항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당부했다.

한인뉴스는 1999년 초반만 해도 교민 자녀 돌잔치, 결혼소식, 한국에서 가족이 와 여행한 이야기 등 소소한 교민 소식을 사진과 함께 화보로 실었지만, 차츰 대사관, 한인회, 기업, 한인단체 등 소식이 늘어나고 사적인 교민 소식은 줄었다. 1999년은 한인공동체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였지만, 교민 수가 많지 않았고 교민들끼리도 한두 사람만 거치면 아는 사이여서 여전히 친밀하게 소통했다.

1999년은 한국부인회(박은경 회장) 활동이 활발하던 시기다. 이 시기에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국 여성들은 주로 가정주부 신분이었고, 비자와 언어 그리고 안전 문제 등으로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한국부인회는 한인전화번호부를 발간하고, 장학금을 모아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와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을 지원했다. 또 교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꽃꽂이, 문예, 문화탐방, 유화, 찌즈발레 등을 배우는 문화강좌를 운영했다. 교민행사에서 음식을 찬조하고 진행요원으로서 봉사하는 역할도 컸다.

인도네시아가 혼란을 겪는 시기에도 1999년 3월에 앙드레김 자카르타 자선 패션쇼가 열려서 현지 언론과 현지 사회에 큰 주목을 받았다. 한인뉴스에는 패션쇼 안내와 개최 후 화보 뉴스까지 자세히 실었다. 1999년은 한인문화예술단체들이 설립되기 전 시기로, 개인이나 소그룹 차원에서 교민 화가인 찰리고(한국이름 고광철) 자선 전시회, 한인미술협회 출범, 월화차회 다례 시범 등이 개최됐다. 하지만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 한인회 송년회, 동문회 송년회, 교회와 성당의 성탄절과 부활절 행사 등은 인도네시아 환경을 생각해서 취소되거나 축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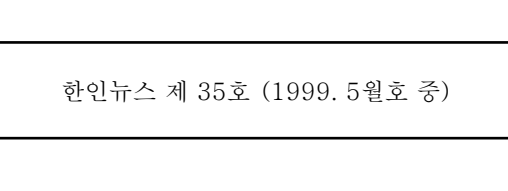
이 시기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대학과 고등학교 동문회를 중심으로 한 사교활동이다. 한인뉴스가 각급 학교 동문회 탐방 기사를 연재할 만큼 동문회 활동이 활발했다. 매월 또는 격월로 정기모임을



했고, 가족체육대회, 야유회, 송년회 등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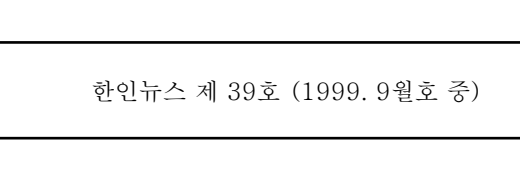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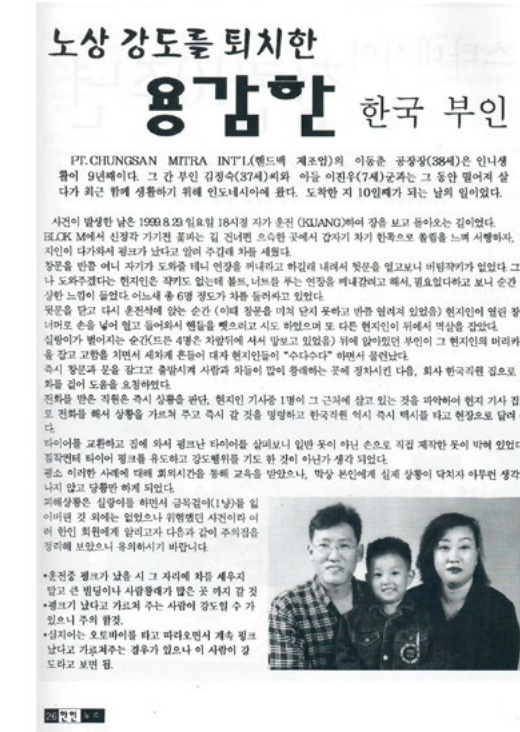
한국인들이 특정 아파트에 몰려 살면서 한국인입주자협의회가 따로 구성되기도 했고, 아파트 내부나 주변에 한국계 상점과 식당이 생기기도 했다. 남부자카르타의 심푸룩 인다(Simpruk Indah) 아파트 한국인입주자협의회는 한인뉴스에 다달이 소식이 보도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당시 한국계 부동산중개업소나 온라인 게시판 등이 거의 없었고, 아파트 입주정보가 귀하던 시절이어서, 한인뉴스가 교민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의 장단점과 시세 등 관련 정보를 취재해 연재하기도 했다.

지금처럼 온라인 정보 검색이 활발하지 않았던 1999년에는 한창 인기가 있던 안쥘(Ancol) 유원지와 개발이 시작된 꼬망 까페 거리, 빠사라야 백화점, 대형마트 마크로와 까르프 등을 소개하는 기사도 한인뉴스에 실렸다.



1999년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는 한인 활동 중에는 골프와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 한인들 사이에 골프가 대중화됨에 따라 골프 에티켓(성인용 한인회 수석부회장 기고문)과 인도네시아어 골프용어(안선근의 인도네시아어 지상강좌) 등을 소개하는 글이 한인뉴스에 실리기도 했다. JIKS 사회과 교사였던 사공경 현 한인니문화연구원 원장은 자카르타 박물관과 갤러리 등을 소개하고 한국부인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99년대 중반에 문화탐방을 시작했다.

한인뉴스를 통해 당시 발생한 사건사고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대사관은 나이지리아 범죠평작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은 잉크를 묻힌 달러가 화학용액을 떨어뜨리면 검은 물질이 사라지고 100달러 지폐로 바뀐다며, 잉크를 지우는 화학용액을 살 돈을 투자하라는 꼬임으로 사기를 친다며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피해를 입고 대사관에 도움을



친한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소문이 돌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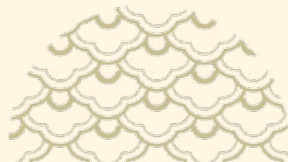
1999년에는 차량 도난 사고도 빈번했다. 길가나 주차장에 세워 둔 차를 잃어버리기도 했고, 고용한 운전기사가 차를 훔쳐가는 경우도 많았다. LG 손해보험(LG SIMAS Insurance)의 신창훈 이사는 직접 고용한 운전기사가 차를 훔쳐갈 경우는, 도난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인뉴스는 한국 부인 김정숙(당시 37세) 씨가 자가운전을 하다가 노상강도를 만나서 용감하고 지혜롭게 벗어난 사건도 보도했다. 길에 못을 깔아 놓고 지나가던 차량이 타이어가 터져서 내리거나 서행하면 도와주는 것처럼 다가와서 물품을 강탈해가는 수법이었다. 이 방식 외에도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칼로 도려내거나, 손도끼로 유리창을 깨고 핸드폰이나 손가방 등 귀중품을 훔쳐가는 범죄가 흔하게 발생했다. *다음호에는 2009년과 2019년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동포 신년인사회 표창 전수(참석)자 명단>

제 13회 세계한인의 날(대통령 표창) 국기원
신승중(태권도 사범)
제 21회 재외동포 문학상 글짓기 가작 이은주
땅그랑 반튼 한인회 서광호(수석부회장)
JIKS 송삼순(교사)
재인니 대한 태권도 협회 하재수(부회장)
한인니 문화연구원 최미리(부원장)
한국자유총연맹인니지부 배연자(회장)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박형동(회장)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김일순(총무)
재인니대한체육회 방진학(사무총장)
월드옥타자카르타지회 서준형(사무총장)
재인니 상공회의소 김민수(사무차장)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이정휴(자문위원)
KOWIN 이신애(봉사분과 부단장)
한인청년회 손현목(총무)
한인선교사협의회 이명호 (전임회장)
외식업협의회 전성현 (회장)

종근당 백인현법인장
세종어학당 조은숙 강사
세종어학당 최은화 강사
자카르타경제신문 조현영편집장
락앤락 김일현 법인장
디자인에이스 김석규
코원재인니한글학교 배선목 교사



신년인사회

1월3일, 주인니대한민국대사관(대사 김창범)은 2020년 새해 맞이 신년인사회를 대사관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한인단체 주요인사 및 각계 한인동포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인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기원하는 신년인사회는 국민의례에 이어 표창장 수여식, 상장 전수식의 순으로 이어갔다.

김창범대사는 “지난해 동부칼리만탄 신수도 개발 협력 MOU 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타결로 괄목할 만한 교류가 있었고 조코위 대통령의 제2기 행정부는 인적자원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힘찬 행보를 시작했다. 올해는 장운원 선생이 자카르타에 첫발을 디딘지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로 한인이주 100주년 행사를 한인회와 함께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한·인니 간 ‘Maju Bersama’ 가 더 공고해 지기를 기대한다. 얼마 전 폭우로 한인동포와 한인기업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그 어려움을 확인했다. 대사관은 한인동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재난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인터넷이 안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지난 9월부터 안전전자공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 후반기 중에 발리분관을 신설하여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임성남 주아세안대표부 대사는 “한 아세안정상 회담을 계기로 아세안 관계를 격상시켜 신남방정책의 효과를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며 인도네시아에서 맞는 첫 새해에 한인동포와의 만남에 반가움을 표했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2020년 9월 20일을 한인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고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인도네시아 한인100년사’ 편찬을 비롯하여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얼마전 홍수로 피해를 입은 한인기업과 동포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위로를 전했다. 또한 지난해 한인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크고 작은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낸 한인동포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한인사회에 온기와 여유, 대화와 미담이 풍성하기를 기원했다.

그 자리에서 대사관은 올해 실시될 제 21대 국회의원재외선거(2020. 4.1.~4.6)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신청마감2월 15일)을 받고 유권자로서의 참여를 독려했다. 식이 끝나고 덕담과 떡국을 나누며 마무리 되었다.



김창범 대사



임성남 대사



박재한 한인회장

인도네시아 한인사 100년의 발자취를 더듬다

기획 탐방 5.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한인 100년사 수석집필위원 사공 경



민영학의사가 자결한 옥수수밭에서

프롤로그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다. 나는 여기 ‘꽃’의 자리에 ‘역사’를 대신 쓰려 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역사가 되었다.”

우리가 암바라와 고려독립당 투쟁현장과 돌아갈 곳 없는 위안부들의 아픔이 서린 현장을 찾아, 그들의 이름을 불러보고, 기록하는 것이 곧 역사를 만드는 일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100년사 탐방은 역사를 쓰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1. 고려독립청년당의 독립투쟁 현장과 땅국의 한이 서린 위안소

스마랑 소재 수모워노(Sumowono) 보병훈련장, 취사장에서 1944년 12월 29일 밤 11시에 고려독립청년당이 결성되었다. 이역관(가명 이활·

33) 등 조선인 포로감시원 10명은 흰 천에 혈서로 이름을 쓰고 당가(黨歌)를 불렀다. ‘반만 년 역사에 빛이 나련다. 충의의 군병아 돌격해라. 피 흘린 선배들의, 분사한 동지들의 원한을 풀어주자, 창을 겨눠라(1절).~~ 우리는 고려독립청년당원 해방의 선봉이다. 피를 흘려라.’ ‘아세아의 강도 제국주의 일본에 항거하는 폭탄아가 되라’ 등의 강령도 발표하고, 불발탄이 되었지만 연합군 포로 수송선 탈취 거사 계획도 세웠다. 이후 당원은 26명이 된다.

① 암바라와 (Ambarawa)

중부 자바의 스마랑과 살라띠가 (Salatiga) 사이에 위치한 도시로 행정상 스마랑시에 속한다. 식민지 시대부터 암바라와는 족자와 마글랑 (Magelang)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철도 허브였다. 스마랑-암바라와-마글랑 (Semarang-Ambarawa-Magelang) 노선은 1977년까지도 운영되었으며 철도박물관도 있다. 암바라와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인 일본 점령기간

에는 최대 15,000명의 유럽인이 수용된 포로수용소가 있던 곳이다. 일본의 항복과 인도네시아 독립선언에 이어 1945년 11월20일~12월15일까지 암바라와 주변에서 인도네시아군과 영국군 사이의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기도 하다. 연합군과 NICA 부대가 암바라와와 마글랑에 있는 네덜란드 포로들을 석방시키고 인도네시아군을 무장해제 시키기 시작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분노했고 연합군과의 관계는 파멸에 이른다. 그 결과 암바라와 전투가 벌어진다.

② 암바라와 의거

1945년 1월 4~6일 3일간 중부자바 암바라와 일대에서 조선인 포로감시원으로 와서 고려독립청년당원이 된 민영학(당시 28) 손양섭(24) 노병한(25) 3의사(義士)가 일본군 10여 명을 사살한 뒤 모두 자결한 항일 의거다.

1945년 1월 4일, 오후 3시쯤 일본군이 자바포로수용소 스마랑분소 제2분견소로 쓰던 암바라와의 성요셉성당에서 출발한 트럭이 8~9km 정도 갔을 때, 고려독립당 혈맹당원인 손양섭 의사가 운전병에게 총을 겨누며 성당 옆 무기고로 가서 민영학

노병한 의사와 함께 총 네 자루와 총탄 2000발을 탈취한다. 무기고는 현재 오토바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후 5시 분견소장(대위) 관사(현 농업학교사무실)를 습격했다. 일본군은 대규모 지원 병력을 급파한다. 1월 5일 민영학 의사가 자결한 옥수수 밭에는 푸르디푸른 벼가 자라고 있었다. 남은 두 의사는 시내로 돌아가 의거를 계속했다고 전해진다. 1월 6일 위생자재창고에서 자결한 손양섭, 노병한 의사는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민 의사가 숨진 옥수수 밭과 고 정서운(1924~2004) 할머니 등 조선처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3명이 머물던 암바라와 성 앞에 위치한 위안소에서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③ 암바라와 성과 위안소

암바라와 성은 1834-1845년에 세워졌으며 1865년 큰 지진으로 건물의 일부가 파괴되었다. 1927년에 교도소로 사용되다가 일본군 점령 당시인 1942-1945년에는 빌렘 교도소, 군 막사가 있었고, 부속 건물로 위안소, 위안부병원이 있었다. 1945년 이후에는 TKR 본부 (안보 군), 1950년



위안소 중에서 화장실로 변한 방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편찬 관계자와 한인들이 19일 인도네시아 암바라와 위안소 현장



정화(삼포공)사원

이후에는 교도소와 군대 막사로 사용하고 있다.

짐승우리보다 못한 위안부들의 처소를 보고 우리는 이방인처럼 서 있었다. 위안소는 충격적이지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인권 유린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소름끼치는 인간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인류보편적인 가치인 인권, 평등, 정의를 외치는 일이 얼마나 공허한 일인지를 깨닫는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의 무상함이 가득한 이 위안소에 조선처녀 13명이 끌려와서 3명은 가혹한 생활을 견디지 못해 죽고, 3~4명은 방공호에 생매장되고, 6~7명 정도 살아 남았다고 한다.

Pramudya Ananta Toer가 쓴 『인도네시아의 ‘위안부’ 이야기』(원제: 일본 군부압제하의 처녀들)이라는 책도 떠올랐다. 절규하다 못해 침묵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무겁고 아픈 이름 위안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본 병사, 하루에도 30명~50명에게 처참하게 성폭력당하고 성병에 걸리고 임신하는 소녀들. 강간당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다가, 낙태하기 위해 아편에 중독되었던 그들. ‘황군 병사에게 주는 선물’, ‘위생공중변소’로 취급되었던 이름. 생존, 인간존엄과는 너무도 먼 거리에 있었다.

2. 역사의 도시 스마랑 유적지

삼포공(Sam Poo Kong)으로 알려진 정화사원: 스마랑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 사원으로. 중국 무슬림 탐험가 정화 (Sanbao, 산바오1371-1435)가 설립하였다. 정화제독은 1405~1433년 동안 7차 원정을 하였으며 7차 모두 인도네시아를 거쳐 갔다. 정화의 대원정으로 동남아에 화교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1405년에 시작된 첫 항해는 약 28,000명의 승무원이 317 함대로 나누어 탔다. 콜럼버스 함대보다 87년이나 앞선 대항해였다. 그의 함대는 아라비아, 브루나이, 동 아프리카, 인도, 말레이 군도 및 시암을 방문하였다. 정화의 일부 함대가 미국을 발견했다고 믿는 설도 있다. 왜냐하면 1492년 아메리카를 발견한 콜럼부스의 손에 이미 지도가 쥐어져 있었다고 한다. 정화제독은 금, 은, 도자기 및 실크를 선물로 주었고, 타조, 얼룩말, 낙타, 상아, 기린을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 그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해역을 오랫동안 괴롭힌 해적들을 진압하기도 했다. 그는 1435년 마지막 항해 중에 사망했으며, 중국에 무덤이 있지만 비어 있다. 그는 바

다에 묻혔지만 일부 역사가는 아마도 스마랑에 묻혔을 것이라고 믿는다.

1704년 사원은 산사태로 무너지기도 했고 혁명 기간과 1960대에는 정치적불안적으로 방치되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개조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특히 2005년 정화제독 600년 탐험을 기념하여 ‘돌아온 정화’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중국은 노를 저어 세찬 물결을 다시 향해하겠다는 마음으로 혁신적인 개조를 한다. 16x16 미터 (52 x 52 피트)였던 사원은 개조 후 34x34 미터가 된다.

천개의 문 (Lawang Sewu): 스마랑의 랜드마크로 네덜란드 동인도 철도 회사의 본부였다. 이 건물은 유령의 집으로 유명하지만 스마랑시 정부는 그 이미지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천개의 문”은 수많은 문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에서 유

래되었다. 건물에는 약 600개의 큰 창문이 있다. 한 건물 앞에는 인도네시아 독립 전쟁 중 사망한 직원 5명의 기념비가 있다.

스마랑 5일 전투 (Pertempuran Lima Hari): 1945년 10월 14~19일 무기인도를 요구하는 스마랑 지역 민병대와 이를 거부하는 현지주둔 일본 군과의 협상 결렬되자 부녀자를 포함한 일본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여 블루형무소에 감금 후 집단 학살한 스마랑 참극사건이다. 일본군이 증파되면서 현지인 2000명 이상의 인도네시아인, 일본인 460명이 희생된다.

1953년 5월20일 수카르노 대통령은 이때 희생된 인도네시아 청소년 독립투쟁 기념비, Tugu Muda를 건립한다. 또한 일본인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1998년 10월 14일 희생자 유족회와 참전자 협회가 진혼비, Tugu Ketenangan Jiwa (Chinkon no Hi)를 건립한다.

3. 국가는 진실을 기억할 의무가 있다.

스마랑 5일 전투의 다른 기억을 다큐멘터리처럼 기념비로, 진혼비로 생생하게 살려내고 있다. 라왕 세우에도 독립투쟁 때 희생된 기념비가 정화장군의 위엄이 그대로 서린 잘 보존 개조된 정화사원에 오면 정화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희생된 조선인 위안부소녀와 고려독립청년당의 진혼비나 표지석이나 입간판이라도 서 있었더라면 가슴에 떠다니는 우리의 아픔이 덜했을까. 정서운 할머니의 말이 떠오른다. “조국이 힘이 없어 끌려간 것인데, 부끄러우려면 우리를 끌고 간 일본이, 그리고 조국이 부끄러워야지.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젊은 그대들은 인도네시아 현대사에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야만

<<암바라와 의거가 시작된 성요셉성당



재인니한인회 2020년 제1차 회장단회의

적인 전쟁의 광기 속에서 조선인 소녀들이 성노예로 끌려가 강간을 당하고 있을 때 조국은 그들에게 과연 무엇이었는가. 국가는 진실을 기억할 의무가 있다. 성요셉성당의 종소리가 탐방 시에도 젊은 그들을 위해 울렸다. 그날 암바라와 의거 때처럼. 암바라와 성은 침묵의 증인이 되어 조선인 소녀들의 처절한 삶을 어두운 역사를 품고 있었다. 탐방 내내 죽은 역사에 바치는 ‘레퀴엠’이 흐르고 있었다.

4. 역사의 진보

자랑스러운 역사든 부끄러운 역사든 과거를 있는 그대로 후세에 가르쳐야 한다고.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고 외치며 열띤 논쟁을 하며 아파했던 탐방 회원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한인100년사 위원장, 총괄, 편집·집필 위원들 —김문환 선생님, 박재한 한인회장, 신성철 대표, 채인숙 작가, 조연숙 편집장—, 최미리 연구원부원장, 최경희 서울대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김민성 스프링필드 11학년생, 그리고 현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김소웅 전스마랑한인회장, 이명호(주)AMM상무, 장영민 웅아란가나안신학대학교수, 인도네시아어 교사, 안나양, 그리고 몇 번이나 다녀왔던 암바라와 현장을 함께하고 새벽에 다른 취재현장으로 달

려가던 한국일보 고찬유 기자, 특히 암바라와 유적지를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던 이태복 시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도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지식인들의 ‘담론’ 공방과 ‘정치적’ 해석은 진실과 역사인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그날 우리 탐방회원들은 역사의 진실에 다가가고 전쟁의 고통과 여성의 피해는 인권과 평화문제로 자각되어야 한다는 역사의 진보에 이르렀다. 그리고 표지석을 세워 위안부 여성들의 아픔을, 고려독립청년당의 정신을 잊지 않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정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에필로그

문정희 시인의 시, 「겨울사랑」처럼. “눈송이처럼 너에게 가고 싶다. 머뭇거리지 말고 서성대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냥 네 처절한 생에 뛰어들어 따스한 겨울이 되고 싶다.” 따스한 100년이 되고 싶다. 새로운 100년이 되고 싶다. 역사를 대하는 엄중함으로.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2020년 1월 16일(목) 오후 4시, 한인회 회의실(영사동 4층)에서 정관 제9조 및 제23조에 따라 ‘2020 제1차 회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는 2월 6일(목)에 열릴 ‘2020년도 이사회 정기총회’에서의 이사회 상정안건을 확정하고, 지난 9월 27일 정관개정위원회 발족 이후 어제(1.6) 11차 회의까지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완성한 정관개정(안) 등에 관한 회장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참고자료:
김문환 『적도에 뿌리내린 한국인의 혼』
한국일보 고찬유기자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459233>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411695>

한국문화원
Korea Cultural Center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2020년 1학기 문화강좌

(강의 기간 2020년 2월 3일 - 5월 14일)

- 강의 기간: 2월 3일(월) ~ 5월 14일(목)
- 수강 신청: 1월 18일(토) ~ 20일(월)/ 온라인 신청
- 강좌 일정:

강좌	일정	비고
미술	월요일 10.00 - 13.00	- 한국인-인도네시아인 누구나
	월요일 14.00 - 17.00	- 그림 그리기 기초부터 작품 만들까지
삼고무	월요일 18.00 - 20.00	- 한국인-인도네시아인 누구나
부채춤	화요일 18.00 - 20.00	- 한국인-인도네시아인 누구나
난타북	수요일 17.30 - 20.00	- 한국인-인도네시아인 누구나
사물놀이	목요일 17.30 - 20.00	- 한국인-인도네시아인 누구나
		- 중급
Kpop 댄스	토요일 10.00 - 12.00	- 한국인-인도네시아인 누구나
	토요일 13.00 - 16.00	- 초급 (한국인 강사) - 한국인-인도네시아인 누구나 - 중급 (인니인 강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타트업의 매직카펫라이드 산업생태계의 "Whole New World"

글: 황준규 (신한은행 부장)

작년 연말부터 국내 토종배달앱의 인수·합병(M&A) 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주방하나, 배달오토바이 하나없는 배달앱 기업의 가치는 무려 5조원에 육박했다. 필자는 해당 기사를 보자마자 할인마트, 슈퍼마켓 및 편의점 뿐만아니라 대형복합쇼핑몰을 운영중인 국내 최대 유통기업의 시가총액이 궁금해졌다. 연매출 20조에 부동산만 10조이상 보유한 해당기업의 당시 시가총액은 3조5천억에 불과했다. 아무리 국내 모바일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 전체 볼륨이 아직 채 10조가 안되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배달앱 기업의 거래액은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했던 기업 가치평가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했다. 국내 유통업의 생태계 변화는 일찌감치 예견되었던 일이나, 불과 4년여 전 테스코(영국의 글로벌 유통기업)가 국내 2위의 대형마트 홈플러스를 토종 1위 PEF사에게 7조원이 넘게 매각했던 일을 떠올리니 모든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의 고군분투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심정이다.

한편, 따로 설명이 필요없는 인니 대표스타트업 기업인 고젝은 작년말 한국에서 성황리에 IR(기업설명회)를 마쳤는데 당시 IR자료에 소개된 고젝의 기업가치는 무려 12조원으로 이는 국내 2위 전자기업의 시가총액과 같은 수준이다. 자카르타 도로를 수놓고 있는 수많은 초록색의 오토바이부대들은 불과 몇년만에 오토바이 하나 없는 고젝을 기업가치 100억불이 넘는 데카콘 기업으로 올려 놓은 바, 고젝을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인니 4대 유니콘 기업중 하나로 소개했던 필자의 한 관련보고서 작성

일이 불과 작년 1월임을 확인하니 세계가 주목하는 ‘동남아의 FinVolution 격전장’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몇년 성공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시장의 가치평가는 필자가 작년 가장 재미있게 봤던 영화 ‘알라딘’에서 주인공 알라딘이 자스민 공주와 매직카펫을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면에서 나왔던 OST 제목 그대로 ‘Whole New World’와 다름이 없다.

이렇듯 최근 10여년간 잭팟을 터트린 스타트업 기업들의 공통된 특징은 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제조업이나 용역을 직접제공하는 서비스업 보다는 제품의 유통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업태에 올라탄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필자로 하여금 리무진 운전기사로 일하다 리무진 예약서비스를 론칭해 억만장자가 된 엠제이드마코를 떠올리게 했다. ‘부의 추월차선’이란 책을 통해 “(자발적 채무와 평생의 노역이라는 암묵적인 계약을 파기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굴레를 스스로 뒤집어쓰고 그 빚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시간을 저당 잡힌 채로 부자들이 조작한 각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조금은 격한 표현으로 근로가 아닌 사업에 인생을 투자하라고 역설한 엠제이드마코는 “절약해서 저축을 하며 살거나 투자한 시간 만큼만 돈을 버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의 삶은 서행차선을 달리는 삶이며 평범하기 그지 없는 삶”이라고 주장하며 부자가 되는 추월차선에 오르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임대(부동산, 저작권), 콘텐츠, 컴퓨터, 유통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사업의 성공을 예견하였다.

이십여년 전 아마존의 창립자 베조스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일부 지분을 매각할 당시 모든 투자자들의 첫 질문은 “그런데 인터넷이 뭔가요?”였다고 한다. 그러나 불과 20년 만에 전세계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은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이며 모든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든 플랫폼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게 된 것이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은 빙하기 이후의 지구 변화만큼이나 기업생태계를 변화시켰으며 이들 모두의 핵심가치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그러나, 플랫폼만을 지향하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거대 자본의 쏠림현상이 시장에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과거 시장을 이끌었던 전통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및 부가가치창출에 대한 기여는 스타트업기업들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넘쳐나는 글로벌 유동자금과 펀드들의 투자처가 공유경제 컨셉 또는 인터넷시스템을 기반으로한 운송·물류 또는 숙박업에만 투자되기 보다는 인공지능이나, 의료 또는 반도체 디자인 등의 하이테크에 골고루 투자되는 것이 경제편더멘트를 다지는데 더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건이 필자의 견해이다.

건조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안정적인 생태환경이 필요한 바,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그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배달앱의 수익은 자영업자의 수익과 제로섬이 되며 공유자가용앱의 수익은 기존 택시기사들의 수익과 충돌할 수 있다. 더구나 자카르타 거리의 운전기사들은 운행당 보수만 받을뿐 보험이나 연금 혜택 등 기존 산업에서의 근로자들이 누렸던 복지혜택은 기

대하기 힘들데 실제 스타트업기업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한 글로벌 펀드가 투자한 중국의 유니콘 기업에서만 작년 32차례 파업이 일어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얼마전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인도네시아 새 수도 건설에 400억달러(약46조36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제의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작년 그랩에만 20억달러를 투자했던 손 회장은 “아직 구체적 숫자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새 수도가 새로운 기술력과 인공지능(AI)으로 가득 찬 스마트하고 깨끗한 도시가 되는데 도움을 주고싶다”며 투자의 뜻을 밝혔다. 인니의 새수도에 대한 통큰 투자들이 이어지는 것은 당연히 반길만한 뉴스이다. 그러나 스타트업기업 투자펀드들은 한가지 사업에 올인하기 보다 다수의 기업에 투자 후 그 중 한곳의 잭팟을 기대할 뿐만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 또한 사업의 계속적 영위 보다는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오르면 지분을 되팔아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투자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몇십년 후를 기대하는 장기투자를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나라의 수도 이전에 대한 투자결정은 국운을 가를 수도 있기에 국가적 대계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이른 바, ‘캐피털게인’을 목적으로 한 투자자금보다는 오랜 동안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동반할 수 있는 산업자금이 투입되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굳이 사족을 달면) 필자는 위험을 감수한 채 돈을 들여 공장을 짓고, 그리고 땀으로 공장을 돌리고, 그리고 또 살아남기 위해 그 경험과 기술로 더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이땅의 모든 제조업자를 진심으로 존경한다. 그리고 남기를 맞추기 위해 휴일에도 밤낮 가리지 않고 공장 한켠에서 항상 땀흘리셨던 어릴적 부모님의 모습이 더욱 자랑스러운 요즘이다.





코어근육을 강화하여 허리를 튼튼하게!

지난 시간에 흉추(등뼈)의 움직임을 살리는 스트레칭과 회전동작을 배웠습니다. 사진과 설명을 보며 동작을 열심히 따라 한 분들은 흉추의 움직임이 한결 유연해졌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어근육을 강화하여 허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어근육이란 인체의 세로축인 척추와 가로축인 복부, 허리, 골반 부위의 뼈와 관절을 잡아주는 근육을 뜻합니다. 즉, 척추를 받쳐 주고 몸통을 바로 세우는 '중심부 근육'입니다.

Point! 흉추의 가동성이 확보 되면 요추부의 안정화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1. 서서 다리 교차로 들며 자세 유지 >> 밸런스와 코어근육 강화
2. 누워서 엉덩이 들고 자세 유지 >> 후면 코어 근육 강화
3. 네발기기자세(quadruped position, 고양이자세)에서 팔다리 교차 들기 >> 코어 밸런스 및 강화

1. 서서 다리 교차로 들며 자세 유지



- 1)정면을 보고 두 손은 가슴 앞에 모아준다.
- 2)한 쪽 다리를 무릎 높이까지 들어주고 2초간 균형을 잡는다.
☞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게 유지한다.
- 3)다리를 내리고 반대쪽 다리를 올려주며 동작을 반복한다.
☞ 양쪽 다리를 각각 10번씩 1세트로, 총 3세트를 해준다.



옆에서 보았을 때 머리부터 발 중앙 끝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복부와 엉덩이의 힘을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



“

흉추의 움직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코어 운동을 강행하다 보면 보상작용(주 근육들을 사용하지 않고 보조근육만으로 동작을 만들어 내려는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허리나 자세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월호 ‘흉추의 움직임을 살리는 스트레칭’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친절한 김 코치의 꿀팁 -

”

2. 누워서 엉덩이 들고 자세 유지

1)먼저 바닥에 누워 두 발의 뒤꿈치를 골반 너비만큼 벌려준다. 앞발가락 쪽은 발 바깥방향으로 약간 벌려준다.

2)턱은 가볍게 당기고 가슴을 펴고 척추는 자연스러운 S자를 유지한 상태로 엉덩이를 들어준다. 이때 몸통을 든다는 느낌보다는 엉덩이를 쥐어짠다는 느낌으로 들어준다.

☞ 이렇게 30~40초씩 유지하는 것을 3회 정도 해준다.

POINT! 허리를 과하게 꺾지 말고 복부에도 살짝 힘을 주어 동작을 진행한다.

3. 네발로 엮드린 자세에서 팔다리 교차 들기

1)바닥에 네발기기자세로 엮드린다. 어깨부터 손까지, 엉덩이부터 무릎까지 1자로 맞춘다.

2)두 손과 무릎으로 바닥을 약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복부를 가볍게 당겨 코어근육에 긴장감을 준다..

3)복부에 긴장감을 유지한 채, 오른쪽 팔과 왼쪽다리를 교차로 들어준다.

4)팔과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반대쪽 다리와 팔을 교차로 들어준다.

POINT! 코어근육에 힘을 유지한 자세로 팔다리를 올렸을 때 숨을 약간 내쉬 뒤, 다시 코어를 잡은 채로 동시에 팔다리를 내려 준다.



글: 김승욱(HUMAN BALANCE, 골라빠가딩)

반란의 시대



당시 머르데카지에 실린 사진

지난 호에 이어

합주국군과 KNIL 부대 사이엔 이렇다 할 전투가 아직 벌어지지 않았고 합주국측은 안디 아지스에게 96시간 이내에 자카르타의 육군사령부에 출두하라는 최후통첩을 전달했다.

아지스는 자신이 반란군의 수괴가 되어 반역행위를 하게 되리라는 것 역시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를 둘러싼 상황과 정부가 변한 것일 뿐이었다. 그러니 그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예전 나찌와 맞서던 네덜란드 지하저항군 시절처럼, 또는 그의 KNIL 부대에게 저항하던 산 속 공화국군 게릴라들처럼, 절대적으로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합주국에 맞서 지하투쟁을 벌이는 것은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었다. 유럽 본토의 레지스탕스들은 강력한 연합군을 등에 업고 그들의 지원을 기대했지만 아

지스와 그의 KNIL 부대가 지하로 스며든다면 누구의 지원도 받을 수 없을 터였다. 그에게 반란을 사주했던 동인도네시아 자치주 검찰총장 수모 킬 박사는 합주국군이 상륙하자 부리나케 마나도를 통해 암본으로 달아났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의 상관 쏫보그 대령은 네덜란드 귀환을 준비하며 몸을 사렸으므로 그는 홀로 버려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결국 중앙정부의 최후통첩에 따라 투항하여 4월 15일 자카르타에 출두했다. 그러나 죄를 묻지 않겠다던 중앙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반란 3년 후 군사재판에서 14년형을 언도받은 아지스는 자신이 혐의를 수궁하고 항소하지 않는 대신 대통령 사면을 청원했다. 안디 아지스가 투항하자 반란에 가담했던 KNIL 보병출신 병사들은 더 이상 누구를 따라야 할 지 모르는

처지가 되었다. 현지 KNIL 부대에는 안디 아지스 대위 외의 다른 현지인 장교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직 KNIL부대가 정식으로 해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합주국군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어정쩡한 상태가 될 판이었다 한편 합주국군의 최후통첩에는 부대의 철수와 무장해제, 그리고 포로들의 석방요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안디 아지스가 투항한 후에도 반란군은 최후통첩의 다른 조건들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알렉스 까윌라랑 대령의 긴급대응부대가 1950년 4월 26일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분위기는 험악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1950년 5월 15일 KNIL 출신병사들이 막사 인근에 게양된 인도네시아 국기를 내리면서 금방이라도 불붙을 듯한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졌다. 합주국 대통령 수까르노가 술라웨시 순회를 위해 마카사르에 도착하던 날에 맞춰 벌어졌으므로 계획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KNIL 부대인근 민간가옥 기둥이나 현수막 등에 합주국을 비난하는 문구들이 써넣어졌고 합주국 장교 한 명이 KNIL 부대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KNIL 부대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합주국군 측은 대단한 인내심을 발휘했지만 분개한 주민들이 민병대를 조직해 KNIL 부대를 공격했고 리빵바쟁 대대와 하리마우인도네시아 대대 휘하의 현지 게릴라부대들도 교전을 준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KNIL 부대는 몸을 사리는 대신 오히려 마카사르를 장악하여 합주국군의 예봉을 꺾으려 했으므로 마침내 마카사르 시내에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다. 5월 15일 KNIL 부대가 합주국군의 병영들을 공격했고 주민들의 집을 불태우며 화교 지역의 가옥과 가게들을 파괴한 것이다. 마카사르 전역이 화염에 휩싸였고 곳곳에 피비릿내와 화약냄새가 넘쳐났다. 하지만 KNIL 부대의 공격은 합주국군측에서도 어느정도 예측했던 것이었다. 합주국군의 반격이 곧 시작되었고 동시에 리빵바쟁 대대, 하리마우인도네시아 대대의 게릴

라부대들도 그들의 근거지인 마카사르 인근 뽀로방깡 지역과 빨랑가 지역에서 내려와 전투에 합류했다. 게릴라 2개 대대와 주민들로 구성된 민병대가 함께 KNIL 부대를 몰아 붙이면서 전세는 금방 역전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합주국군 총참모총장 A.H. 나수티온 대령과 KNIL 부대의 부참모장 빠레이라 소장이 각각 마카사르에 도착해 사태를 파악하고 협상에 나섰다. 1950년 5월 18일 그들이 참관한가운데 합주국측 대표 스톱트 이스칸다르디나타 중령과 레오 로폴리사 대위가 KNIL 측 대표 쏫보그 대령, 무쉬 중령, 테이만 중령 등과 회합을 가졌다. 그 결과 KNIL 부대와 합주국군 사이의 경계선이 확정되고 두 부대는 서로 50미터 이상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령이 채택되어 일단 급한 불을 졌다. 이 협상은 KNIL 부대를 세 군데 장소로 분산시킨다는 결정도 담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7월에 접어들면서 불안한 휴전은 금방 깨지고 다시 맹렬한 교전이 시작되었는데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곳은 마리소에 있던 KNIL 병영과 봄슈트랏 거리 마또양인의 KNIL 병영 인근, 호그왓의 KNIL 간부숙소 등이었다. 전투는 사흘 밤낮으로 계속되다가 7월 말이 되어서야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KNIL 부대 해산

KNIL은 1950년 7월 27일 정식으로 해체된다. 이제 당면한 문제는 KNIL 부대원들을 어느 부대로 배속시키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중 일부는 네덜란드 왕립군에 귀속되었고 또 다른 일부는 합주국군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아직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KNIL 부대원들은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었다. 주민들은 그들을 네덜란드 식민주의 자들의 주구라 여겼고 네덜란드 측은 자신들이 그동안 전쟁터로 내몰았던 인도네시아인 부하들에게 닥쳐올 운명에 별반 신경을 써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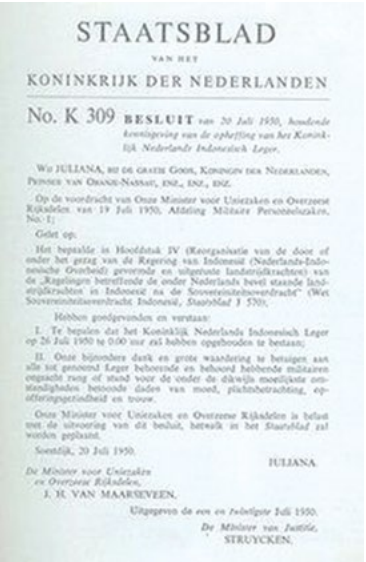
마카사르의 KNIL 부대원들의 상황은 1950년 7월 26일 왕립 네덜란드군으로 임시 편입된 후에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인도네시아 태생 KNIL 병사들을 네덜란드군에서 내쫓거나 무장해제시켜 합주국군에게 인도하려는 네덜란드군 지휘관들의 강압이 그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불안과 절망의 끝에서 그들은 폭주하기 시작했다. 게양된 인도네시아 국기를 내려 분쟁을 일으키는가 하면 인근 마을에 가족을 방문하고 돌아온 합주국군 장교를 잔인하게 살해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도발에 대해 합주국군은 대수롭게 않게 반응했으므로 합주국군이 이번에도 너무 인내심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것은 합주국 동인도네시아 전역사령관 까윌라왕 대령의 대응자제 지시를 따른 것이었다. 당시 안따라통신은 이렇게 보도했다.

“어제 17시00분 까윌라왕은 마카사르의 정당 및 조직 대표들과 접견했다. 그는 합주국군이 KNIL 측 도발에 대해 너무 인내로 일관하는 것을 대해 주민들이 실망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주국군은 정부의 정규군이며 KNIL은 합주국군으로 재편되지 않는 한, 단지 객으로 와 있는 다른 나라의 군대일뿐이다. 합주국군은 KMB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 우리의 전투력으로 현재의 문제를 즉각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혼란만 더욱 가중될 것이고 전 세계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나라의 위신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KNIL 부대의 도발과 합주국군의 인내 사이에서 결과적으로 합주국군이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이냐는 내부적 딜레마가 발생했다. 더욱 인내해야 하느냐 아니면 적정선에서 물리력을 사용해 겁을 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더욱이 KNIL 부대에 대한 마카사르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져 해당 지역 KNIL 부대와외 모든 상거래 행위를 보이콧 하기에 이른다. 이제 KNIL 부대원들은 병사들을 먹일 식료품을 사들일 수도 없고 커피 한 잔 제대로 사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게 형성된 험악한 분위기는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으므로 긴장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합주국군 측은 1950년 8월 5일 인도네시아 주둔 네덜란드군 대표와 회합을 갖기로 했다. 네덜란드군의 대표 세 명과 UNCI의 대표도 참석한 회합에서 합주국군은 긴장완화를 위해 주민들을 설득해 KNIL 부대에 대한 보이콧을 풀도록 했다. 그러나 이 협상결과가 나온지 불과 80분 후인 그날 17시20분을 기해 KNIL 부대는 합주국군 병영과 가루다부대 10여단 참모들의 숙소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협약에 대한 즉각적인 배신과 도를 넘어도 너무 넘어버린 이 사태는 대해 합주국군과 하사누딘 사단에 편입된 토착 게릴라부대들, 그리고 마카사르 주민들을 격분시켰다. 전투 초기엔 KNIL 부대가 전장을 장악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세는 곧 역전되었고 항공과 해상지원에 힘입은 합주국군은 게릴라부대, 민병대들과 더불어 KNIL 부대들을 격퇴했다.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초창기엔 대책없는 오합지졸이었던 인도네시아군이 이제 네덜란드군과 대등히 맞서 격퇴할 수 있을 정도의 전투력을 지니게 된 것이다. 불과 72시간이 채 되지 않아 KNIL 부대가 각각의 병영 안에 포위되어 전멸될 위기에 처하자 1950년 8월 8일 마침내 만다이 비행장에서 합주국군을 대표한 까윌라왕 대령과 인도네시아 주둔 네덜란드군 최고사령부를 대표한 셰플라르(Scheffelaar) 소장 간에 조약이 체결된다. 그들은 모든 네덜란드군이 마카사르를 떠나고 보유 장비들을 전량 합주국군에게 양도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장병들은 왕립네덜란드군에서 축출될 것임도 분명히 했다.



네덜란드 줄리아나 여왕의 KNIL 부대 해산명령서와 KNIL 부대마크

1950년 8월 8일 16시00분 체면을 잔뜩 구긴 네덜란드군은 마카사르에서 철수하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조롱과 야유를 퍼부었다. 이는 1949년 12월 27일 네덜란드로부터 주권을 이양받은 후 처음으로 네덜란드군과의 전투에서 거둔 분명한 군사적 승리였고 그 결과 네덜란드군을 해당 지역에서 물리적으로 몰아낼 수 있었다. 이로써 이 지역에선 자치주 국기 대신 인도네시아 국기인 적백기가 영원히 휘날리게 되었다.

퍼펫마스터 크리스 수모킬 박사

1949년 12월 27일 인도네시아에 대한 네덜란드의 주권승인은 열도 각 부분에서 다양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데 인도네시아의 북단인 북부 술라웨시도 큰 충격을 받은 곳 중 하나였다. 동인도네시아 자치주는 발리, 롬복, 술라웨시, 얀본 및 오늘날의 NTT주와 NTB 주를 모두아우르는 광대한 지역으로 이곳이 한 개의 국가로 남았다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뉴기니 사이의 거대

한 해상제국이 되었을 것이다. 이 지역은 1945-1950년 사이 독립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친공화국파와 친네덜란드파로 나뉘어 내부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했고 네덜란드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 양쪽을 이간질 시키며 이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공고히 하려 했다. 공화국군에 합류해 독립전쟁에 참전했던 이 지역출신 TNI 장교들은 고향의 그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며 우려했는데 이들은 주로 1948년 조직된 민병대 출신으로 공화국군에 합류한 후 대체로 합동 KRT-X 군단(일반예비군단 X)이라는 곳에 함께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의 대표격인 A.G 램봉 중령이 동료인 J.F.와로우 중령과 함께 H.N. 수무알 소령, 삐엣안퉁 대위 등 많은 후배 장교들과 지연으로 맺어진 긴밀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나중에 제16여단으로 재편되어 마디운 공산당반란 진압에도 나섰고 네덜란드군의 제2차 공세 당시에도 최전방에서 전투를 치렀다.

다음호에 계속



2020 년 1 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인도네시아 발리섬 ‘꾸따 ~ 공항’ 지하 경전철 건설... 한국 참여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철도시설공단, 인니업체 MOU 체결



<발리섬 ‘꾸따 ~ 공항’ 지하 경전철 예상 노선>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경전철(LRT) 건설사업에 한국이 참여한다.

22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철도시설공단은 전날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사인 ‘닌디아 까르야’ (Nindya Karya)와 경전철 건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발리섬 유명 관광지인 꾸따에서 응우라라이공항(텐빠사르공항)까지 4.75km 구간에 5조 루피아(4천280억원)를 투입해 전 구간 지하에 경전철을 건설하고자 한다.

닌디아 까르야 사장 카림은 “인도네시아 공항 공사가 지하에 여객 셔틀용 LRT를 건설해 교통혼잡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고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올해 6월까지 공사를 시작해 2022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투자자뿐만 아니라 사업의 당사자로 동참하고, 인도네시아 공항공사도 곧 MOU에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철도시설공단은 인도네시아 북부 외곽을 달리는 경전철 1단계 사업을 수행했다.

5.8km 구간, 6개 역을 잇는 토목공사는 현지 업체들이 했지만, 철도공단이 한국 중소기업과 손잡고 우리 기술로 전력과 신호체계 등 경전철 시스템을 구축했다.

철도공단은 자카르타 경전철 1단계 구간이 지난달 상업 운행을 시작한 데 이어 2단계(7.5km) 공사의 사업관리를 총괄하는 사업관리용역을 수주했다.

이번 발리섬 경전철 건설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석달 동안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진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노동 · 규제개혁’ 옴니버스 법안... 노동계 반발



노동법 등 80여개 법률 1천200여개 조항 수정안 일괄 마련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를 위해 노동법 등 80여개 법률의 1천200여개 조항을 일괄 수정하기 위한 ‘옴니버스 법안’을 마련해 곧 국회에 제출한다.

이 법안은 노동 개혁과 규제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정할 조항의 대부분은 사업허가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고, 외국인 자본투자와 토지 조달, 최저임금 등 고용과 관련한 규정도 손본다고 21일 현지 매체와 외신들이 보도했다.

앞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법을 하나하나 뜯어 고치려면 50년은 걸릴 것”이라며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주면 국민과 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고, 경제성장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작년 11월 연합뉴스 특파원과 인터뷰에서도 “국회에 70여개 법률 관련 조항을 상정해 한 번에 모두 수정 조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활동을 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고, 쓸모 없는 공무원 직책은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옴니버스 법안은 제조업과 농업, 에너지, 광업 등 15개 분야의 사업 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고, 네거티브 방식의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를 없앤다. 또, 현재는 매년 인플레이션과 국가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지만, 지역별 경제성장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후하다는 평가를 받는 퇴직급여 규정을 손볼지에 관심이 쏠려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퇴직자는 퇴직금에 근속사례금, 보상금, 전별금을 받는다.

정부는 퇴직급여가 기업인들에게 부담이라고 보고, 실업급여를 도입하는 대신 퇴직급여 규정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했다. 옴니버스 법안에 실제 반영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노동계는 “노동자들을 희생시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지난 13일과 20일 자카르타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개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처리 강행 시 파업 가능성을 경고했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보건부, 우한 폐렴 확산에 주의 당부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최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를 중심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 확산됨에 따라 폐렴 발생이 확인된 국가나 지역에 대한 여행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21일자 현지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보건부는 지난 3일부터 중국 등에 대한 도항(渡航)에 주의를 당부함과 동시에 여행객과 접촉하는 공항 직원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등의 대책을 취하고 있다.

보건부 질병통제예방국 관계자는 “바이러스의 유행을 막기 위해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

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에 대해 건강 상태에 관한 질의표 작성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Soekarno Hatta International Airport)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135곳의 모든 입국장에는 체온감지기 배치가 완료되었다.

한편 우한 폐렴은 날로 확산하며 중국에서만 감염자가 440여명에 이르고 9명이 숨졌다. 이어 주변 국인 대만, 한국, 일본, 태국 등에서도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MRT자카르타-국영철도 KAI, 합작회사 설립... 자카르타 철도 통합 추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도시철도(MRT)를 운영하는 MRT 자카르타(PT MRT Jakarta)와 국영철도 크레타 아삐 인도네시아(PT Kereta Api Indonesia, KAI)는 10일 철도 통합 정비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합작회사를 정식으로 설립한다.

합작회사는 모다 인터그라시 트랜스포타시 자보데타벵(PT Moda Integrasi Transportasi Jabodetabek, MITJ)으로 출자 비율은 MRT 자카르타가 51%, KAI가 49%이다.

현지 언론 콤포스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자카르타 아니스 주시사는 10일 서명식에 참석해 “통합 사업의 제1단계로 KAI의 중앙 자카르타 빠사르 스텐역, 주안다역, 파나아방역, 수디르만역 4개 역을 3월까지 개발한다”라고 말하며 “대중교통 및



자가용 이용 비율은 현재 1대 3이다. 2030년에는 이를 반반으로 만들고 싶다. 최종적으로 3대 2의 비율까지 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KAI와 MRT의 연간 이용자 수는 총 3억 9,300만명에 이른다.

부디 교통장관은 “자카르타의 이러한 협력 모델이 성공하게 된다면 지방의 대중교통 개발의 시초가 될 것이다. 각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청, 작년 대출 성장률 6.1%로 둔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16일 지난해 상업은행의 대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6.1%로 목표의 8~10%를 밑돌았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된 영향으로 전년의 11.8%에서 크게 둔화,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는 경제성장 회복과 금융업계의 실적 개선이 예상됨에 따라 목표 대출 성장률을 10~12%로 설정했다.

OJK에 따르면, 은행 카테고리별 증가율은 대규모 은행 ‘BUKU4’가 7.8%, 중견은행 ‘BUKU3’가 2.4%, 소규모은행 ‘BUKU2’와 ‘BUKU1’가 각각 8.4%와 6.4%였다. 대출 목적별 증가율은 건설 부문과 가정이 모두 14.6%로 전체를 견인, 투자 자

금이 13.2%로 그 뒤를 이었다.

작년 말 시점의 상업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NPL)은 그로스 값이 2.5%, 넷 값이 1.2%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자기자본비율(CAR)은 23.3%, 예대율(LDR)은 93.6%였다.

OJK의 워보 청장은 “세계경제 침체와 국제정세의 혼란을 감안하면 올해도 국내 경제 침체가 우려된다. 그러나 인프라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며 정부의 구조개혁 등의 노력을 통해 올해 금융업계의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각 은행은 OJK에 제출한 올해 사업 계획을 통해 목표 대출 성장률을 10% 정도로 설정했다.

올해 인도네시아 부동산 시장, 저조 전망

13일자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부동산 관계자들은 올해 국내 부동산 시장이 저조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 사빌스 인도네시아(Savills Indonesia)의 안톤 조사 컨설팅 부장은 “정부와 중앙은행(BI)이 부동산 구입에 대한 세제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시장을 크게 활성화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올해는 중산층과 중산층보다 아래 계층을 위한 주택 개발이 늘어나고, 도시 외곽에서의 개발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계 부동산 콜드웰 뱅커 커머셜(Coldwell Banker Commercial)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

황은 지난해보다 개선되지만 성장률은 한 자리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부동산 정보 사이트 ‘루마 123(Rumah 123.com)’의 컨트리 매니저를 맡고 있는 마리 아씨는 “대폭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개인 소비를 환기할 수 있다면 시장의 성장률은 10%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Cutt & Grill (Senopati)

글: 주윤지(한국컨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여러분~안녕하세요☺ 올해는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이라 2월 29일까지 있어요~
왠지 2월 하루를 더 번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2월 하면 2월 14일 밸런타인 데이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이번 밸런타인 데이는 금요일입니다. 짹짹😊 모든 분들의 행복한 밸런타인 데이, 즐거운 불금을 기원하며 이번 호에서는 데이트하기에 딱 좋은, 분위기 있는 식당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분위기 있는 식당은 비싸다’라는 일반적인 편견을 이번에 제가 확! 격파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식당을 첫 방문했을 때, 식당 외관만 보고 ‘아, 오늘 돈 좀 깨지겠구나ㅠㅠ’라고 걱정이 앞섰는데요. 자리에 앉고 메뉴판을 보는 순간, 눈을 비비며 깜짝 놀랐답니다. 분위기 좋은 식당 치고 오히려~가격이 생각보다 착하더라고요! 그 때부터 직감했죠. ‘아, 이 곳은 이제 최애 식당이 되겠구나@.@’ 여러분~사실 저 고민 많이 했어요… 여러분께 이 곳을 소개해 드려야 말지… 저만 알고 싶은 식당이거든요ㅋㅋ 하지만 올해 새해 복을 많이 받기 위해 통 크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Cutt & Grill의 인기 메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이 곳에서 무조건 수제 버거를 반드시! 꼭! 드셔야 합니다! 왓! 그전에 Pear Arugula Salad(70,000루피아++)로 먼저 입맛을 상큼하게 돋구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야채가 아삭아삭하게 싱싱한, 가격 대비 고급~진 샐러드입니다. 다른 식당에선 절대 이 가격에 드실 수 없을 거예요.

이 곳엔 Angus Beef Burger, Hawaian Beef Burger, Tandoori Chicken Burger, Masala Fish Burger 등 다양한 종류의 수제버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Godzilla Beef Burger(165,000루피아++)를 강추합니다! 일단 비주얼이 끝내줍니다. 버거가 정말 정말 커요. 여성분들은 절대 혼자 못 드실 거예요. 아마 남성분들도 다 드시기 힘들실 거라고 조심히 예상해봅니다… 이 버거의 크기를 사진으로 잘 담고 싶었지만 사진으로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ㅠㅠ 처음 버거 크기에 놀라고, 그 다음에는 두툼한 쇠고기 패티맛에 놀랍니다. 햄버거 스테이크를 먹는 느낌이라 할까요. 쇠고기 패티가 참 알찹니다. 여기서 꿀팁! 패티는 미디움 또는 미디움 레어로 주문하세요~ 웰던으로 주문하시면 좀 뽀뽀하실 거예요. 계속 버거와 감튀만 먹다보면 자칫 느끼할 수 있는데요. 곁들여 나오는 살짝 매콤한 소스가 확 잡아 줍니다. 그리고 이 집의 수제 버거가 맛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니다. 직접 만든 버거빵을 사용하더라고요. 이러니 맛이 있을 수밖에 없죠. 버거빵만 따로 먹어도 폭신폭신했던 게 참 맛있어요.

나름 밸런타인 데이 데이트 특집인데 버거가 끝이야?라고 생각하신 분들. 짜잔~이제 고기를 썰을 차례입니다. Black Angus Sirloin(190,000루피아++, 300그램)을 추천합니다. 전 미디움 레어로 주문했는데요. 입안에 살살 녹기에 딱 적당한, 굵기 정도였습니다. 물론 스테이크도 매우 맛있었지만, 당근, 오이, 호박, 적색 고구마 등 다양한 야채들이 스테이크와 함께 아기자기하게 나오는데 데코레이션이 정말 최고였습니다. 5성급 호텔에서 먹는 스테이크가 부럽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이 곳의 셰프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이 식당의 본점은 Tebet에 있는데요. 세노파티 지점은 최근 몇 달 전 오픈한 아주 따끈따끈한 새 식당입니다. 식당의 오너가 스리랑카 분이어서 그런지 셰프도 스리랑카 분이시더라고요. 자카르타 시내 식당 중 가격, 분위기, 맛 등 이 세 박자를 고루고루 갖춘 식당은 몇 안 되는데요. 이제 Cutt & Grill도 추가요~ 이 자리를 빌어 스리랑카인 오너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와인도 저렴합니다@.@ 이진 섯! 저희끼리 비밀로 해요☺) 다음 호에서도 유익한 맛집 정보로 찾아 뵈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식당 정보 : Cutt & Grill>

음식 종류 : 웨스턴
가격대 : Rp 5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목, 일 11:30~23:00
/ 금-토 11:00~00:00
전화번호 : 021-3950-783
위치 : Jl. Suryo No.34
Jakarta Selatan

※ Zomato 참고



나는 바하사로 수다떠다

민선희

『유창한 회화를 위한 열공 인도네시아어 문법』 저자

올해는 인도네시아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하신 분 있나요? “하루에 30분씩 해야지” “1시간씩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건 소용없어요. 나와의 공부 시간 약속을 깨도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늘 생기죠. 저도 ‘점심시간 마다 꼭 봐야지’, ‘자기 전에 보고 자야지’ 하고는 며칠 열~심히 하다가 또 원래대로 돌아가버리더라고요. 오뎅이처럼 실패와 성공을 무한 반복하죠. 요즘은 점심시간이나 자기 전으로 미루지 않고 아침에 책상에 앉으면 새로운 공부를 가능한 먼저 해요.

제가 잘 쓰는 방법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배수지진’ 을 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 만나면 수다가 안 떨어지는(?) 사람과 공부 약속을 한다든지. 직장인들은 체력이 없으면 평일 저녁엔 공부가 힘들니까, 주말 학원을 다닌다든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부하는 것도 좋고요. 선생님이든 친구든 다른 사람과 공부하는 고정 시간을 확보하는 건 그 자체로도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수단이에요. 이걸 계기로 나혼자 준비하는 시간, 공부 시간을 더 늘리려는 수단이에요. 결국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 만이 언어를 잘 할 수 있어요. 물리적인 세월이 알아서 실력을 키워주지 않지요. 이번 호에서는 ‘신년 계획’ 에 대한 표현들을 공부해봐요. 바하사로 수다떠는 그날까지 열공~!

❶ Resolusi tahun baru (신년계획) / Harapan tahun baru (새해에 바라는 것)

- ☐ harus diet supaya lebih langsing dan sehat (더 날씬하고 건강하도록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 ☐ ingin diet / ingin menurunkan berat badan (살을 빼고 싶다, 몸무게를 줄이고 싶다)
- ☐ mau makan lebih sehat / ingin punya kebiasaan makan makanan sehat (더 건강하게 먹고 싶다,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싶다)
- ☐ ingin lebih sering makan di rumah / mengurangi makan di luar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더 자주 먹고 싶다) 집밥을 더 자주 먹고 싶다 (ingin lebih sering makan makanan rumahan)
- ☐ ingin ngegym minimal 3 kali seminggu (한 주에 적어도 3번 헬스장에 가고 싶다)
- ☐ ingin lebih sering berolahraga (더 자주 운동을 하고 싶다)
- ☐ ingin bangun lebih pagi (더 일찍 일어나고 싶다)
- ☐ ingin berhenti merokok (담배를 끊고 싶다)
- ☐ ingin menghindari pemakaian HP yang berlebihan (과도한 핸드폰 사용을 줄이고 싶다)
- ☐ ingin dapat promosi di kantor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다)
- ☐ ingin lebih rajin belajar bahasa Inggris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다)
- ☐ ingin baca buku lebih banyak (책을 더 많이 읽고 싶다)
- ☐ ingin melunasi utang (빚을 갚고 싶다)

- ☐ ingin sisihkan uang untuk investasi saham (주식투자 할 돈을 따로 떼어두고 싶다)
- ☐ ingin punya tabungan yang lebih banyak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싶다)
- ☐ ingin jalan-jalan ke luar negeri (해외 여행을 하고 싶다)
- ☐ ingin keliling Indonesia/dunia (인도네시아 or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
- ☐ ingin menghabiskan lebih banyak waktu dengan keluarga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 ☐ ingin belajar alat musik (악기를 배우고 싶다, 기타 gitar)
- ☐ ingin belajar main tenis / main golf (테니스 치는 걸 배우고 싶다 or 골프를 배우고 싶다)
- ☐ ingin buka restoran (식당을 열고 싶다)
- ☐ ingin resign / ingin dapat pekerjaan baru (퇴직하고 싶다/새로운 일을 얻고 싶다-이직)
- ☐ ingin punya lingkungan baru, ingin pindah rumah (환경을 바꾸고 싶다, 이사하고 싶다)

바하사로 수다떨기

① 에를린 : 사니야, 올해 계획이 뭐야?

사니 : 앓 모르겠는데, 아직 생각 안 해 봤어. 넌 있어?

에를린 : 뭐 ..특별한건 아닌데 영어 공부하는 거 밖에 없어. 내년엔 호주 가잖아 나. 거기서 너무 안 힘들게 준비해야지

사니 : 힘내야 돼~넌 꼭 할 수 있을 거라 믿어.

Erlin : San, apa resolutimu tahun ini?

Sani : Aduh, aku bingung. Belum pernah terpikir. Kamu punya resolusi?

Erlin : Ya.. bukan sesuatu yang spesial.. gitu sih. Aku cuman pengen* belajar bahasa Inggris saja. Aku kan tahun depan mau ke Australia. Harus siap-siap dong biar enggak terlalu berat di sana. (*pengen -생활회화에서 쓰는 '~하고 싶다(ingin), pengin이라고 사전에 나와있지만, 실제로 현지인들은 pengen이라고 많이 씀)

Sani : Harus semangat ya. Saya yakin kamu pasti bisa.

② 안도 : 사니, 새해 계획 지킨 적 있어? 나는 맨날 실패해. 어떻게 하면 새해 계획을 지킬 수 있는 거야?

사니 : 그게 어렵지 정말 응? 나도 사실 성공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저번에 구글에서 찾아봤잖아. 새해 계획 유지하는 방법이 뭔지.

안도 : 뭐래? 좋은 방법 있어?

사니 : 간단해. 일년을 바라보는게 아니라. 너무 기니까 일년은. 중간에 지치잖아.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만드는 거야. 그럼 중간에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주 일주일에 다시 시작하는 거지. 한국말에 작심삼일이란게 있는게 이걸 작심일주일 ㅎㅎ

안도 : 3일보단 일주일이지 나한테? ㅎㅎㅎ





Ando : San, kamu pernah bertahan dengan resolusimu enggak? Kalau aku, selalu gagal.
Gimana sih caranya biar bisa bertahan dengan resolusi tahun baru?

Sani : Nah.... itu enggak gampang memang ya. Aku juga enggak pernah sukses sebenarnya. Makanya kemarin aku cari di google gimana caranya mempertahankan resolusi.

Ando : Apa tipsnya?

Sani : Caranya mudah. Kita jangan melihat setahun. Itu terlalu panjang. Kita lelah di tengah jalan. Bikin rencana seminggu saja. Jadi kalau pun di tengah jalan gagal, kita mulai lagi di hari senin depan gitu. Kalau orang Korea bilang, resolusi hanya bertahan 3 hari, tapi ini bertahan seminggu.

Ando : O... seminggu lumayan tuh daripada tiga hari. Hahaha

③ 사니 : 올해 바라는 거 있어?

파흐리 : 너무 많은데. 근데 몇 년 동안 새로운 게 없어. 맨날 그게 그거야.

사니 :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걸. 중요한건, 시도를 계속하는 거 아니겠어? 작은 거부터 하는 거지.

Sani : Harapanmu apa tahun ini?

Fahri : Terlalu banyak. Udah bertahun-tahun resolusiku ya.... itu-itu saja.

Sani : Ya.... mungkin semua orang gitu. Yang penting, dicoba terus, kan? Mulai dari hal-hal yang kecil saja.

④ Arif : San, kamu kok gendut sekarang?

Sani : Ya.. orang duduk terus gimana enggak gendut? Tapi tahun ini aku mau diet kok.

Arif : Bukannya diet itu dari dulu?

Sani : Ya... enggak pernah sukses diet. Aku memang omong doang alias omdo hahaha.

Namanya “agari dieter” hahaha

Arif : ?? Apaan tuh? “agari” ?

Sani : Enggak usah tahu! Ada deh~

Arif : Kurangi porsi makan saja. Pilih yang lebih sehat.

Sani : Aku udah tahu caranya kok. Praktiknya yang susah.

아리프 : 사니야, 너 요새 살 좀 썩 거 같다?(전과 다른데...) 왜 그래?

사니 : 엄..... 계속 앉아만 있으니 살이 안 찌고 배기겠냐? 근데 올해는 다이어트 할거라고!

아리프 : 그전부터 했던 게 아니고?

사니 : 엄....성공한 적이 없지... 난 원래 말로만 다이어트해. 일명 아가리다이어터라고 하하하

아리프 : 잉?? 그게 뭔디?? “아가리??”

사니 : 몰라도 돼. 그런 게 있어 ㅋㅋ

아리프 : 양을 좀 줄이고, 더 건강한 걸 선택해.

사니 : 나도 방법은 알거든? 실천이 어려워서 그렇지.

팩트체크 Fact Check ✓

◇ Maunya kurus tapi tiap malam pesan ayam goreng.
날씬해지고 싶으면서 매일 밤 치킨을 주문한다.

◇ Maunya bakar lemak tapi justru makan makanan berlemak tinggi, belum bisa lepas dari gorengan.
지방을 태우고 싶지만, 오히려 고지방 음식을 먹게 된다. 튀김에서 손을 뗄 수가 없다.

◇ Berharap punya pacar baru, tapi belum bisa move on dari mantan.
새 남친/여친이 생겼으면 하지만, 옛 사랑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 Maunya naik gaji, terus dapat promosi, tapi dikit-dikit cuti. Pulang “teng-go” lagi.
월급도 올려 받고 승진도 하고 싶은데, 걸핏하면 휴가를 쓴다. 칼퇴까지 한다
(퇴근 시간 “땡” 하면 집에 간다)



☞ 인니어가 궁금하면? 여기로 nusantara817@daum.net

봉아완 솔로

하연수 / 수필가 (한국문협 인니지부 감사)
yshaseolin@gmail.com



자카르타 공항 출발 이전부터 내 머릿속은 중요한 일본 출장인 도쿄의 거래처 회의보다 히노미사키 등대에 가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도쿄 거래처 미팅을 이틀 만에 끝내고 서둘러 일본 서부 이즈모 해안 바위절벽 위 히노미사키 등대로 갔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오랜 세월과 시간이 걸렸지만 나를 이곳까지 오게 만든 인도네시아 노래 하나와의 인연은 참 길고 끈질기다는 생각이 든다. 뻘 속에 새겨져 있는 인연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나를 동경주 봉길 바위 절벽, 인도네시아 솔로, 수라카르타, 그리고 이곳 일본 서해바다 시골구석까지 찾

아오게 할 수 있었을까? 알 수 없는 인연의 ‘봉아완 솔로(Bengawan Solo)’ 라는 인도네시아 노래는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께서 배울 때까지만 해도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던 노래는 아니었다. 이 노래가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고향 다녀오다 갑자기 겨울 바다가 보고 싶어 차를 봉길리 이견대 정자로 향했다. 그때 이견대 정자 끝에서 한 소녀가 오키나와로 연주하는 ‘봉아완 솔로’ 노래를 듣게 되었다.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는데 아마도 ‘봉아완 솔로’ 와 인연의 서곡이 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날 소녀의 어머니 아야꼬 여사가 들려준 ‘봉아완 솔로’ 이야기는 나를 인도네시아 중부 자와 수라카르타와 솔로로 찾아가게 만들었고, 일본 서부 시마네 현 이즈모시 히노미사키 등대까지 찾아 오게 만들었다. 히노미사키 등대 안내를 맡아준 택시 기사는 히노미사키 등대가 동양에서 가장 높은 등대라고 자랑했고, 2차 대전 때 일본 서해를 지나다니는 적의 전함을 감시했던 등대로, 군신의 대우를 받을 정도로 유명하다고 했다. 등대가 바다 감시역할을 했다는 말을 한국 사람인 나로서는 별로 좋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택시 기사는 신이 나서 설명을 했다. 하얗고 높은 등대 앞에 몇 명의 여자들이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아야꼬 여사의 할머니와 어머니도 저 등대에 남방전선으로 간 외할아버지의 무사귀국을 바라는 기도를 했던 곳이라니 왜 사람들이 이 등대에 예를 올리는지 이해가 될 듯했다. 택시 기사 말로는 여기에 온 관광객들은 대부분 저렇게 예를 올린다고 하며 자신도 짧은 예를 올렸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 절벽 위에는 일본 서해바다에 뜨는 적의 군함을 감시했다는 히노미사키 등대가 바다를 향해 눈을 부릅뜨고 서 있다. 일본 서해바다 건너 서쪽 끝에는 적이 침입하면 저절로 음악이 연주된다는 만파식적 피리 전설이 있는 이견대가 있다. 가까워 질 수도 멀어 질 수도 없는 두 나라의 긴 역사들이 마주하고 있는 곳이다. 오



래 전 바다 건너 우리의 동해 절벽 위 이견대에서 아야꼬 여사의 딸의 평화스러운 노래 ‘봉아완 솔로’ 를 오키나와 연주로 들었고, 나는 지금 그 이견대 절벽바다 건너 편 이즈모 히노미사키 등대 앞에서 아야꼬 여사의 어머니가 연주했을 봉아완 솔로의 흔적을 더듬고 있다. 높은 등대 앞 바위 절벽 여기저기에서 아버지를 그리던 소녀, 아야꼬 여사 어머니의 봉아완 솔로 연주가 바다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하다.

아야꼬 여사 어머니를 등대주변에 두고 소나무 숲으로 가고는 했다는 아야꼬 여사의 외할머니의 흔적을 찾아 왼편 소나무 숲으로 갔다. 정말 아야꼬 여사의 외할머니가 안타까워하며 쓰다듬어 주었다던 상처투성이 소나무들이 아직도 이 숲 속에 있는지 빨리 확인해 보고 싶었다. 서늘한 기운이 낮게 깔려있는 숲속에 들어서자 비스듬히 밀리듯 서있는 소나무들은 하나같이 꺾질이 가로 뻗반 넓이에 세로 두 뺨 길이로 벗겨진 가슴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맨살에는 손가락 마디 간격으로 깊이 파여 있는 V자형 칼자국 상처들은 전범들이 일으킨 대동아 전쟁의 상처들이다. 아야꼬 여사의 외할아버지도 대동아 전쟁 때 남방 군으로 수라카르타 어느 산에서 전사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아야꼬 여사의 외할머니가 눈물을 쏟으며 쓰다듬어 주었다던 이 상처들은 아야꼬 여사의 외할머니 가슴속 상처이기도 했으리라.

전쟁이 끝난 다음 해에 참전 동료 친구가 아야꼬 여사의 할아버지 유품이라며 먼지와 빨간 소독약 흔적이 여기 저기 묻어있는 악보 한 장과 대나무 피리 하나를 전해 주고 갔다고 했다. 그 너털너털한 악보는 외할아버지가 수라카르타에서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이며, 악보 아래 손으로 흘려 쓴 거상(Gesang)이라는 글은 작곡가의 이름이고 수라카르타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했다. 전사자 유품을 전달하러 왔던 동료의 말로는 아야꼬



여사의 외할아버지는 전쟁 공포가 밀려오면 자신이 관리하는 의무실로 가서 스스로 모르핀 주사를 맞거나, 피리를 불어 전쟁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다고 한다. 전쟁 중 갑자기 사라졌는데 전쟁이 두려워 산속으로 숨어 버렸을 수도 있다고 했다. 어쨌든 이 행방불명이 전사로 기록되었다고 한다. 아야꼬 여사의 외할아버지 유품인 ‘봉아완 솔로’ 악보와 피리가 전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평화의 노래인 ‘봉아완 솔로’가 전쟁을 일으킨 나라 일본 땅에서 들불처럼 퍼지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이 노래에 가장 열광했던 사람들은 주로 대동아전쟁에서 돌아온 참전군인들이라고 했고, 아마도 전쟁 중에도 가슴 속에 품고 있던 평화에 대한 갈망의 표출이라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 아야꼬 여사의 외할머니는 혹시 이 노래를 방송을 통해 퍼뜨리는 사람 중에 남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이리저리 수소문 하고 찾아다녔다. 이런 노력에도 남편을 찾지 못한 아야꼬 여사 외할머니는 가끔 딸인 아야꼬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즈모 히노미사키 등대절벽 소나무 숲으로 갔다고 했다. 소나무 숲 밖에서 기다려야 했던 아야꼬 여사의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소나무 숲에서 나올 때까지 절벽 위에서 ‘봉아완 솔로’ 피리를 불며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날 이견대 늦겨울, 뺨이 붉은 모자를 쓴 소녀가 조용히 서서 고구마같이 생긴 오카리나를 연주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아야꼬 여사와 딸

이었는데 노을이 붉은 절벽 위에 서 있는 모녀의 모습이 환상적 실루엣으로 허공에 새겨지고 있었다. 여름도 아닌 늦겨울에 나 말고도 이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했지만, 절벽 위 이견대 앞에서 ‘봉아완 솔로’ 연주를 듣는다는 것은 정말 신기할 따름이다. 잠시 후 이견대 정지로 돌아오던 모녀도 나를 보고 무척 놀라는 눈치였고 아야꼬 여사의 남편이 올 때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다. 남편이 한국인이라는 아야꼬 여사는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온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놀랐고, 그때까지 내가 가보지 못했던 솔로에 대한 것까지 많은 질문을 했다. 그날 아야꼬 여사와 만남이 ‘봉아완 솔로’에 대한 내 관심의 불씨가 되었다.

소나무 숲 앞에서 고개를 들어 가까이 살펴보면 눈을 부릅뜨고 바다를 감시하는 히노미사키 등대가 있고, 아야꼬 어머니의 ‘봉아완 솔로’ 피리 연주가 있었다. 멀리 바라보니 적이 쳐들어오면 저절로 소리를 낸다는 피리 만파식적 전설의 이견대가 있고, 아야꼬 여사의 딸의 오카리나 연주 ‘봉아완 솔로’가 있었다. 그 ‘봉아완 솔로’ 노래와의 인연은 동경주 이견대에서, 중부 자와 솔로, 수라카르타 그리고 히노미사키 등대가 있는 절벽까지 나를 오게 했다. 이제 끈질기고 길었던 ‘봉아완 솔로’ 인연을 히노미사키 앞 바다로 내려 보내려 한다. ‘봉아완 솔로’ 노래와의 인연은 내 가슴을 떠나 해면의 파도 층을 지나고 분노와 평온의 층을 차례로 지나 고요한 심해가 되리라.

2020년 제4회 적도문학상 공모

1. 공모 부문 : 시, 수필, 단편소설, 동화
2. 주 제 : 해외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야기
외국인=한국이야기
3. 응모 대상 : 성인 및 만 15세 이상 학생 및 청소년
4. 응모 방법 : 자유시 2편 이상 / 수필 2편
(수필 1편 분량 A4 11포인트 2쪽 내외)
단편소설 및 동화 : 1편 이상
(1편 분량: A4 11포인트 5쪽 내외)
5. 접수 기간 : 2020년 1월 28일 - 3월 20일(금)
발표: 4월 10일 ★시상식은 4월 25일(토)예정
6. 제 출 처 :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사무국
이메일 : spring609@naver.com
7. 문 의 : +62-811-805-017 / +62-811-969-1190
+62-812-234-7011



시상 내역 / 성인 부문		시상 내역 / 학생 및 청소년 부문	
대 상 (1명)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상 - 상장 및 상금 US\$1,000	최우수상(1명)	쨌아세안 대대상(외국인) - 상장 및 부상
최우수상(2명)	쨌인니한국대사상 / 재인니한인회장상 - 상장 및 부상	우수상 (3명)	한인포스트상 / 재인니한인문예총회장상 글로벌 기업문학상
우수상 (3명)	재인니 한인상공회의소회장상 / 한국문협인니지부장상 글로벌기업문학상 - 상장 및 부상	특별상 (1명)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장상 - 상장 및 부상
특별상 (1명)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장상 - 상장 및 부상	장려상 (3명)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상 - 상장 및 부상
장려상 (3명)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상 - 상장 및 부상		

- * 대상 (적도문학상) 당선자는 작가등단이 인정되며 최우수상 성인 당선자도 한국문단 등단기회 부여
- * 당선작은 <인도네시아문학>에 게재되며 수상자는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으로 가입됨
- * 적도문학상 학생 수상자는 한국문인협회에서 발행되는 적도문학상 수상 증명서 교부

- 주 의 사 항
1. 응모작은 지면이나 사이버 공간에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창작물이어야 함
 2. 표절 및 저작권 문제가 발생될 경우 당선시 취소됨
 3. 응모작의 앞부분에 이름, 거주지,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4. 응모작은 마감기일을 엄수하며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관 : ㉠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후원 : 자카르타 한국문화원 / 재인니 한인회 / HanInPost
HANAH PRESS /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 / PT. CIPTA ORION METAL

경향년, 밤새가 이루고 싶은 것은?



(학생기자 JIS12 김다현)

보고 싶은 유진이에게

유진아 안녕? 너의 중학교 절친 중에서도 절친 다현이야!!

유진아 우리 벌써 20살된 거 믿겨져??

같이 중학교 때 수학 학원 마치고 편의점에서 야식 먹던 거... 내가 여기 인도네시아로 가게 되
어 헤어진 게 진짜 엇그제 같은데...

유진아, 3년 동안 입시생으로 고등학교에 다니며 수능 공부 하느라 정말 고생했다. 마음 같아서
는 지금이라도 졸업식에 맞춰 한국으로 날아가 꽃다발 주면서 '수고했다'고 안아주고 싶은데...
너무 아쉽다. 나도 이제 5월에 최종 시험을 보면 6월에 한국으로 들어갈 거야.

이제 숫자로는 어엿한 성인인데 우리가 벼르고 있었던 것 하나하나 해 나갈 걸 생각하면서 한
편으론 기대에 부풀어 있어. 너도 그렇지?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해기로 학교가 떠들썩했어. 벌써 한국은 감염자 나왔다는데...

올해는 나한테 학업이 무조건 우선순위가 될 바랬는데 어른들이 항상 말하는 건강이 얼떨결에
우선순위가 된 것 같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중간에 아프기라도 하면 3년 동안 공들여서 쌓
아 올린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니 그럴 수 없지!!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게 솔직히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더라. 이제 시험이 100일도 안 남
은 시점에서 실제 파이널이 코앞인데 학교에서는 진도도 다 안 나가고, 계속되는 과제와 학교
시험으로 계속 몰아치더라구! 진짜 파이널을 위해서 시간을 할당을 못 하겠는 거야.
마음만 조급하고...

우리 아빠께서 잠 자는 시간도 자기 의지에 달렸다고 매일 그러셨는데 이제야 이해가 된다.
잠을 줄이려는 노력이 제일 힘들어... 이 자리를 빌어서 졸인다고 약속 할게. 말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더 열심히 해서 특례 받은 만큼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고 너에게 당당하게 말
할 수 있도록 노력 할게.

졸업하고 한국 돌아가면 면접 준비하랴, 대학 입시 준비하랴, 정신이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
인으로서 혜택은 마음껏 누리고 싶다는 거야. 우리 저번에 영화 보러 갔다가 생일 안 지났다고
영화 못 보게 한 거... 난 아직도 한이 돼. 노래방에 가서 12시 넘어서까지 성대 찢어쳐라 노래
부르고 대학 축제도 다니고... 물론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겠지.

우리가 매일 안부 인사처럼 우리 볼 날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랬는데 진짜 얼마 안 남았어!
항상 응원해주서 고마워. 올해 3월에 대학가면 수강 신청 잘하는 방법 좀 알아 났다가 내년
에 나한테 알려주려!
사랑해!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아.

2020년 1월 20일

너의 베프 다현이가



조선도자기, 동아시아와 유럽을 개우치다

차정민 (JKS 중학교졸업. 민족사관고등학교 2학년)



2020년 1월 18일 한인니문화연구원에서 권영주 고전문학박사의 “한중일 도자기 전쟁과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강좌가 열렸다. 이번 주제를 통해 서로가 새롭게 역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는 YK 교육 개발원 원장, 부산초량왜관 연구회 학술이사이며, 2019 신지식인으로 선정(역사.문학전담해설)되기도 했다. 현재 방통대 고전문학 강의를 하고 있으며 다수의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세한 탐구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가 현대에 갖추고 있는 교육 시스템의 여러 요소들이 일본의 것을 기반으로 세워진 것들이 적지 않다는 점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일본의 야마구치 현에 속해 있는 하기라는 4만의 작은 어촌 마을에 요시다쇼인이 설립한 ‘쇼카손주쿠’라는 작은 서당(세계유산으로 지정)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을 모두 길러냈다. 이곳 하기 출신들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 근대화로 간다. 이곳의 교육방식은 철저한 토론식 수업이었다. 시험도 없었고 지행합일을 가르쳤다. 즉, ‘청출어람, 교학상장, 줄

탁동시’가 이곳 서당에서 영향을 받은 것임을 알게 됐다. 이는, 일본이 당시 대외적 상황 및 개방교류의 중요성 등을 깨우치고 세계적 정세에 맞게 살아온 것을 나타낸다.

일본 근대화의 기반이 된 조선도자기

도자기이야기를 해보자. 일본의 경우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도자기를 모조리 훔쳐오고 도공들도 모두 납치했다. 일본에 간 이삼평을 비롯한 여러 조선도공들의 도움으로 결국 일본은 도자기 기술을 꽃피웠고 히라도 국제무역항에 위치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지사를 통해 유럽으로 일본도자기 즉, 조선의 도공이 만든 도자기를 팔기 시작한다. 히라도에는 아예 조선인 도공을 위한 도공마을이 있었다. 이삼평, 심당길, 이작광, 이경, 백파선 등의 조선도공들은 일본에 도자기를 발전시킨다. 왜국으로 일관하던 조선은 숙종 때 부산 초량왜관에 도자기 공방을 무료로 세워주고 80년간 도자기에 사용할 흙을 포함한 모든 재료와 도공까지 제공해주어 일본이 마음껏 도자기를 만들어 본국으로 가져가고 그것으로 큰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

주는 한심한 일까지 했다. ‘도자기의 가치’ 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혼’조차 몰랐었다. 이삼평의 아리타 도자기는 네덜란드 무역선을 타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경유하여 터키 이스탄불에 도착하여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 일본은 큰돈으로 부강해진다. 임진왜란 뒤에 이에야스 에도막부가 쇄국정책을 펼칠 때에도 일본은 빗장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었다. 나가사키 인공섬 데지마에 네덜란드 교역만은 허락했다. 덕분에 이 지역에서는 네덜란드인들의 실용적인 문학 책들이 퍼져 나갔고, 난학이 발전해 ‘학문의 자율시대’를 맞는다. 일본 지식인들은 선진 근대문물을 마음껏 받아들인다.

게다가 일본은 세계 제1의 은 생산량을 자랑하는 이와미 은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또한 조선의 회취법 보유기술자 두 명이 넘어가서 세계최대 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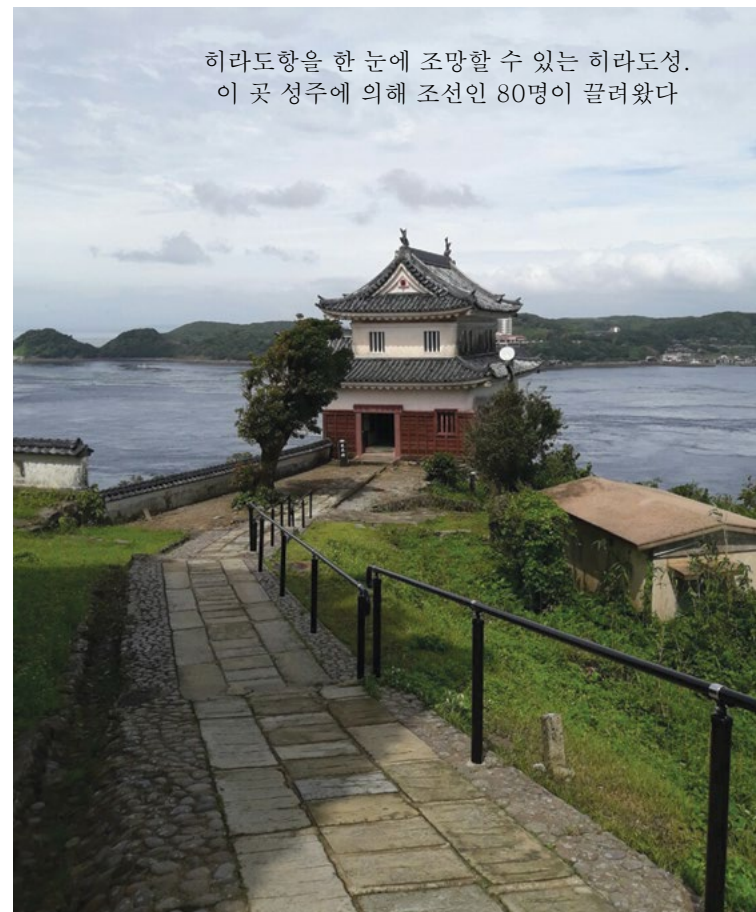
볼리비아의 포토시를 제쳤다고 한다. 은을 보유한 일본은 포르투갈 상인과 무역을 통해 철포를 구입하고, 회취법으로 총알을 만든다. 임진왜란 때 일본은 조선인들의 기술로 만든 총알을 사용하는 아이러니에 도달한다. 조선도자기와 난학 그리고 은은 일본을 개혁을 이루고 제국주의의 기반을 탄탄하게 할 자산이 되었다.

조선의 도공은 일본의 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청의 화려한 도자기보다 조선의 소박하고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도자기에 푹 빠져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당시 조선의 도공들은 천민이어서 자신이 만든 도자기에 이름을 새기지 못했지만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의 도공들은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해주고 이름이 없는 이들에게는 이름도 지

어주고, 후에 한 지역의 두 목이 되도록 사회적 지위도 주었다고 한다. 규슈의 나가사키 사세보시 산골에 ‘마카와치’라는 도자기 마을에는 조선도공 이작광 이경의 후손들이 아직까지 모여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일본의 ‘아리타 도자기’를 만든 조선의 천민 이삼평은 일본백자의 도조로 인정받고 신으로 모셔지고 있다니 놀랍다. 조선 도공들은 납치되었지만, 조선에 있을 때보다 나은 대접을 받고 살았을 것 같다. 실사구시의 학문을 천대했던 조

도자기의 시조가 된 웅천에서 끌려온 조엔의 손자-도조신사





도공 후손들이 만들어 팔고 있는 도자기

선이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조선의 도공들을 일본에 빼앗긴 것이다. 원통할 뿐이다.

도자기, 책, 은광 그리고 유문법

일본은 결국 조선 도자기로 돈을 많이 벌었고 그것이 근대화를 이뤄낼 때 조선은 어땠는가. 임진왜란의 쓰라린 기록을 적은 징비록, 북학과 박지원이 청에 사절단으로 갔을 때 보고 들은 청의 선진문명에 대해 적은 열하일기와 같이 창고에 가둬두고 국민들에게 읽히지 않은 책들이 많았다. 유교 사상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못한 채, 나라는 상업을 친시하게 되는 좁은 사고방식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당시 무역의 기본이었던 은을 조선은 보유하고 있었지만 은광 개발을 금지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세종대왕 당시에는 은을 몰래 채굴하는 자에게는 교수형을 선고하고, 영조 때에는 농업에 방해 요인이 된다는 명목 하에 금지령을 내렸다. 나는 이 부분에서 질문을 했다.

“성리학적 질서를 기반으로 세운 나라가 바로 조선이고 당시의 현실은 이 사상을 귀족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사용하는 도구로 써서 민중을 무식하게 만든 시기였는데, 설사 백성들도 마음껏 책을 읽고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 하더라도 중국과 같은 강한 강대국의 눈치를 보아야 했다면 과연 일본처럼 조선도 근대화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던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결론적으로는 정답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딜레마였던 것이다. 최근에 벌어진 사드 논란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강대국에 의존하고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피치 못할 고민이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에는 세상의 정세를 파악하지 못한 나라의 탓이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동아시아 3국을 비교하며 17세기 최강국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통한 무역을 거친 도자기가 조선 도공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일본제품으로 팔려 나간 우리 도공들의 열이 유럽에 일본을 문화강국으로 알리는데 크게 일조하였다.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장학금 유치 최계월 회장 홍상 제막식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교장 김윤기)는 2020년 1월 17일 (주)코데코와 장학금 전달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창범 인도네시아 대사를 비롯하여 200여분이 참석하여 고 최계월회장의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확인하였다.

최근 인도네시아 한인사회가 국제금융위기 및 산업환경 악화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액의 장학금은 학교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김윤기 교장은 말했다. 정필립 코데코 회장은 올해부터 5년간 매해 장학금을 기부하기로 하였으며, 이 장학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교장은 학생 장학금 및 교육기자재 구입, 스쿨버스비 지원 등 오직 학생들에게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학금의 경우 인도네시아 인과 결혼한 다문화가족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서 정필립 회장은 김윤기 교장에게 장학금 외에도 JIKS 학생으로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해 인조잔디 테니스장과 최신식 농구장 등도 지원해주겠다고 말해 주위의 큰 박수를 받았다. 김교장은 현재 축구장, 수영장, 실내 체육관에 테니스장과 골프연습실을 갖춘다면 우리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많은 참석자들이 이렇게 큰 장학금 유치는 처음인 것 같으며 이를 계기로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도 이를 본받아 자기 자신만 돌보지 않고 주위와 함께 살아가는 학생으로 커갔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 이외에도 김교장은 학교발전을 위해 (주)미래엔과 MOU를 통해 약 1,300만원어치 도서를 기증받았다. 재외학교 특성상 한국도서가 부족한 사실을 파악하고 출판사와 MOU를 맺고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들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책을 기증받아 도서관에 비치하였다.

외국인직원 및 이사회원의 법적 지위(2)

(전호에서 계속)

2.5. 법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근로자 사망 혹은 정년퇴직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결과 정년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결은 고용관계 종결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지 않으나, 고용관계 종결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과 같이 근로자에게 해고금 지불을 의무화하고 있다.

2.6.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결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고용관계 종결 시에는 유가족에게 제156조 2항에서 규정한 해고금의 2배 및 3항에서 규정한 장기 근속금 1배 와 4항에서 규정한 제 배 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2.6. 사용자에게 의한 고용관계 종결

2.6.1. 해고 절차 준수 원칙

노.사.정.은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노.사.간 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며, 고용관계 종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업관계 분쟁해결 기구에 고용관계 종결/해고 허가를 신청하여, 산업관계 분쟁해결 기구의 결정문이 나오면 고용관계 종결이 가능하다.

2.6.2. 해고 금지 사유

다음의 사유로 인한 해고를 금한다.

2.6.2.1. 와병으로 의사진단서를 제출하고 12개월 미만 계속 결근한 사유

2.6.2.2. 법규에 정해진 국민의 의무 수행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사유.

2.6.2.3. 종교상의 의무인 예배를 드린 사유

2.6.2.4. 근로자의 혼인 사유

2.6.2.5. 근로자가 임신, 출산, 유산 혹은 수유를 한 사유

2.6.2.6. 근로자가 회사 내 다른 근로자와 혈연 혹은 혼인연을 가진 사유, 그러나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 근로 계약서에 약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6.2.7. 노조 설립, 노조에 가입, 노조 간부 보직, 사용자와 합의하에 혹은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중 혹은 근무시간 외에 노조 활동을 한 사유

2.6.2.8. 사용자의 형사범죄 행위를 고발한 사유

2.6.2.9. 사상, 종교, 정치성향, 부족, 피부색, 출신, 성별, 신체조건 혹은 혼인신분의 상이 사유

2.6.2.10.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면 산업재해로 인한 원치시기가 불명한 영구 불구 혹은 질병 사유

2.6.3. 허가 없이 해고가 가능한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산업관계 분쟁해결 기구의 허가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

2.6.3.1. 견습기간 중인 근로자

2.6.3.2. 사용자의 압력 없이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한부 고용계약만기 종료 시

2.6.3.3. 고용계약서, 사규, 단체근로 계약서 혹은 관계 법규에 의해 정년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

2.6.3.4. 근로자 사망 시

2.6.4. 고용관계종결 원인무효

법정 절차를 밟지 않고 고용관계를 종결한 경우에는 원인 무효로 간주되며, 산업관계 분쟁해결 기구의 허가가 나올 때까지는 노사 모두 평소대로 각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7. 형사 피의자 혹은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한 고용관계 종결

2.7.1. 사용자 혹은 제삼자의 형사 고발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직당국에 의하여 구속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 지불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의 부양 가족에게 다음과 같이 생활보조금 지불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160조에서 규정한 “사용자가 아닌 제삼자의 형사고발로 근로자가 구속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가족에게 생활보조금 지불의무가 없다” 는 내용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로 실효했다)



2.7.1.1. 부양가족이 1명이면 급여액의 25%

2.7.1.2. 부양가족이 2명이면 급여액의 35%

2.7.1.3. 부양가족이 3명이면 급여액의 45%

2.7.1.4. 부양가족이 4명이상이면 급여액의 50%

2.7.2. 상술한 생활보조금은 근로자가 구속된 날로부터 최장 6개월 동안 지불하며, 사용자는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아 6개월이 지나도 근무가 불가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무죄판결을 받으면 계속 근무를 허용해야하며, 6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유죄판결을 받으면 산업(노사)관계분쟁해결기관의 허가 없이 해고할 수 있다.

2.7.3. 상술한 이유로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장기 근속금, 미사용 년가 배상금, 채용지까지 귀항비와 주택비 및 의료비로 장기 근속금의 15%를 지불한다.

2.7.4. 사용자는 사용자가 아닌 제삼자의 형사고발로 인하여 유죄가 확정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이때에 사용자에게 해고금 지불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2.8. 외국인 직원과 회사의 관계를 규정한 법적 근거

2.8.1. 고용계약서(*근로자와 회사 간 체결)

2.8.2. 사규(*근로자 10명 이상 고용한 회사에게 사규 제정 의무가 있으며 외국인 직원도 사규의 보호를 받으며 사규 준수 의무가 있다)

2.8.3. 단체근로계약서(*노동조합과 회사 간 체결한 단체근로계약서. 단체근로계약서가 있는 회사는 사규 제정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의 회원 수는 최소 10명이어야 한다.)

2.8.4. 노동법령(법률, 정부령, 대통령령, 장관령, 청장령 등)

*** 한국인 근로자와 회사 간에 고용에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것이 기준이 되는가?**

법리상으로는 한국인근로자에게 제일 유리한 기준이 다른 기준에 우선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 포함 모든 근로자는 인도네시아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노동법은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이며 제정되었으며 공법으로 분류된다. 사익이 아닌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기 때문에 강제적이다. 사용자는 준수 의무가 있으며 준수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강제 제재가 뒤따른다.

한국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계 근로자는 대부분 한글 혹은 영어로 고용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근무지, 직책, 근무시간, 급여, 오버타임 수당(급여), 숙소, 의료비, 년가, 퇴직금 등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종종 퇴직금 문제로 보호를 요청하는 한국인근로자를 접한다.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아 달라는 요청이다.

인도네시아정부에서 회사에게 해당 한국인직원 고용을 허가해주는 외국인고용허가통보서(Notifikasi)에 고용허가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한국인 직원과 회사 간에 체결한 고용계약서는 기한부고용계약(PKWT)에 해당된다. 기한부고용계약은 인도네시아 노동법에 회사에게 퇴직금 지불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 고용계약서에 회사에게 퇴직금 지불 의무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리상으로는 구제가 어렵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은 고용계약서에 퇴직금 지불에 관하여 명시이 필수이다. 내용을 자세하게 규정한 고용계약이 분쟁 방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인도네시아 정치의 다이나믹스



2020년 경자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1월4일 한인니문화연구원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인 이지혁박사를 모시고 “인도네시아 정치의 다이나믹스” 라는 주제로 66회 열린강좌가 열렸다.

이날은 평소보다 많은 교민들이 참석하여 이지혁박사의 명쾌한 해석과 분석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정치상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지혁박사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한인니문화연구원 객원연구원

◆ 저서 『바틱으로 보다. 자바이야기』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소비문화』 (공저)

『한국기업의 VIP(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국가투자진출 지역전문가의 조언(공저) 등 책출판과 더불어 지속적인 연구와 강연활동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는 동남아시아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4월 대선결과의 승리로 2기집권의 시대를 열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동남아국가중 제도적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슬람국가 중 민주주의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는 서구식 일반적인 민주주의와는 다르게 디커플링(decoupling) 되어 가고 있다. 이는 정치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이슬람세력이 제도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이 오히려 정교분리를 방해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코위의 득표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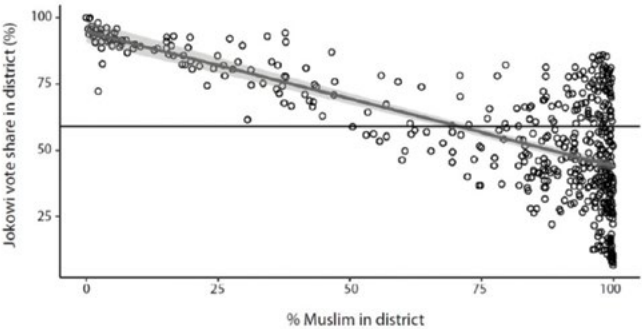
조코위는 이슬람중에서도 전통주의 · 온건주의 ·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NU의 전국적 지지와 뻘짜실라(Pancasila)의 정신이 살아있는 다수의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다수의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조코위 1기 정책들이 2기 집권으로 완성되어 국가경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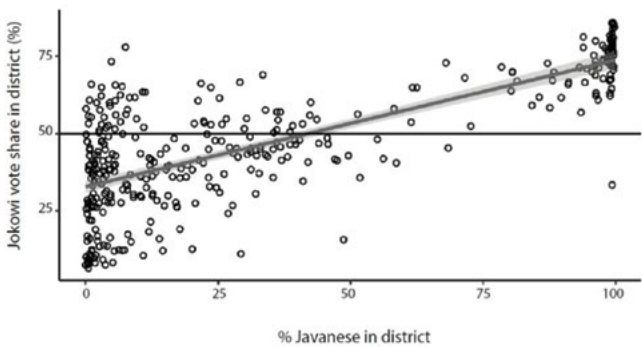
전 및 국력신장을 이루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코위 정부가 추구하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정책적 방향

1.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2. 인적개발과 보건 · 교육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3. 샤리아 경제(Ekonomi Syariah)강화, 경제적 공정성에 기초한 경제발전을 통한 빈민해소와 불평등완화
4. 최대의 숙원 사업인 수도 이전
5. 부정부패방지과 관료주의 혁신



무슬림 인구 50% 미만인 지역 중 뿌라보워가 승리한 곳이 한 곳도 없음



무슬림 인구가 80% 이상인 지역, 자바인이 많으면 많을 수록 조코위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남



인도네시아 정치의 '다이나믹스'

글: 이혜자 (한인니문화연구원)

인도네시아 박물관 헤리티지

“10세기 배어난 황금 유물”



글 : 이수진 (박물관 해설사)

꽃롱콩 끈디(Kendi)

18세기 발리 꽃롱콩 왕국 유물이다. 금, 은, 루비/ 높이 31 지름 18 / 유물번호 E745/14832

발리 끌롱콩 왕국 유물이다. 윗 부분에 물을 붓기 위한 뚜껑 달린 입구가 있고, 좁은 주둥이와 손잡이가 있다. 주둥이와 손잡이는 S-라인으로 되어 있고, 주둥이에는 황금으로 된 새의 머리와 비늘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다. 손잡이는 끈디의 긴 목에 얼굴 장식이 있다. 상단의 덮개는 원반(범륜chakra)에 시바의 상징물인 삼지창이 사방으로 붙어있다. 상단의 덮개와 손잡이 부분은 섬세한 고리 사슬로 연결 되어 있다. 끈디는 산스크리트어로 성스러운 물을 담은 항아리를 뜻하는 끈디카(Kundika)에서 유래한 것이며, 예식이나 결혼식에 성수를 담는 데 사용했다. 둥글고 풍성한 몸체는 다산을 의미하며 풍요를 상징한다.



용모양 그릇 (Container)

19세기 칼리만탄 반자르마신/ 은 / 유물번호 E369

왕관을 쓰고 혀를 내밀고 있는 용 모양의 그릇이다. 꼬리가 긴 용이 네모난 단상 위에 올려져 있다. 은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용 모양 그릇은 빈랑 열매와 시리 잎을 담는 데 사용되었다. 이 그릇은 반자르마신 왕국이 족자카르타와 수라카르타 왕국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이 용기는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궁정에서 특별한 의식 때 사용되었다.



Indonesian Heritage Society



마물리(Mamu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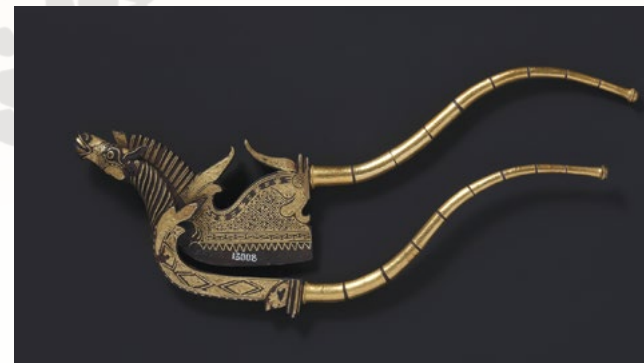
18세기 동부 누사뎡가라 숨바/ 은 동 / 높이 7.5 너비 6.5 / 유물번호 29037a

마물리는 숨바 지역의 전통 장신구로서 재앙과 질병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며 주재료는 금, 은, 동이다. 숨바 사람들에게 금과 은은 부와 신분을 과시하는 수단이며 동물은 좋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동물 문양 마물리가 많다.

마물리는 왕실과 귀족들의 귀중한 유산으로 전해 내려 오는데 말, 물소 외에도 생명의 탄생과 소멸을 의미하는 해골 나무(skull tree)등이 장식으로 사용된다. 마물리는 결혼예물로 신랑측 가족이 신부에게 주는 지참금 역할을 한다. 신랑 가족은 가족들과 마물리를 신부 가족에게 주고 답례로 신부 가족들은 신랑 가족에게 의식용 의복과 선물들을 주었다. 마물리는 신부가 착용하고, 후에 그녀의 딸이 물려받거나 집의 가보로 대물림되었다. 마물리는 귀에 걸거나 목걸이에 다는 장식으로 사용한다.

자르는 도구 (Kacip)

19세기 초 발리 바둥 / 금 철 / 길이 26.5 너비 7.3 / 유물번호 E 943 /13008



잎담배를 만들 때, 빈랑나무 열매의 껍질을 벗기고 자르던 도구이다. 시리 잎에 보통 감비르, 석회석 반죽과 빈랑 열매 조각을 넣어 잎담배를 만든다. 이것은 말 머리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지만, 까뽀는 스마르(Semar) 와양인형이나 새, 용 등 다양한 머리 모양을 가지고 있다. 19세기 초 발리의 귀중한 유물로 금과 철로 만들어졌다.



공 고

인도네시아 한인동포가 쓰는 '한인100년사'의 제목과 표지디자인을 공모합니다.
인도네시아한인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에게는 선물을 드립니다.

자유기고모집

한인뉴스에서는 인도네시아 거주 중인 분들의 자유기고, 그림, 사진, 만화 등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 madonnaj202@gmail.com / 081-111-7230

편집후기

‘기억하라 1999’ 칼럼을 편집하면서 모처럼 지난 한인뉴스를 뒤적여보았습니다.
아는 얼굴들의 지난날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기록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어렴풋하던 것이 확실해지고
과거는 흐르지 못하게 하는 퇴적이 아닌
청소된 통로여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편집장 홍석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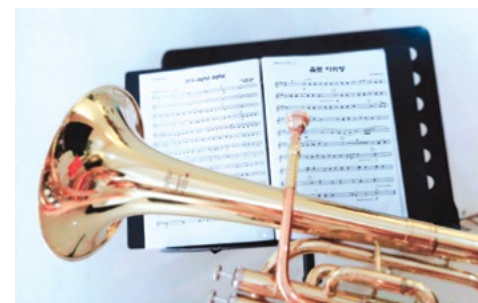
← A STAR IS BORN



남 혜 임 (버카시 거주)

인생 2악장

#호른과만나다 #민폐가아닌소리예술 #두번재입맞춤 #엄마가아닌'나'



❤️ 💬 📌 좋아요 1498



ACG School Jakarta
Educate - Create - Innovate

유치부 | 초등부 | 중고등부

Open Day

2 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 - 12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해주시요.

(+62) 21 2978 0200 | acgjkt@acgedu.com | jakarta.acgedu.com

Jl Warung Jati Barat (Taman Margasatwa) no 19, Jati Padang, Pasar Minggu, South Jakarta 12540



Cambridge Assessment
International Education

Member of inspired



코린도 사회공헌재단 2천 그루 나무 심어 제1회 보고르 도시숲 조성



제1회 보고르군 도시숲 식재후 기념 촬영

왼쪽부터 : 이철훈 회장(보고르 한인회) / 안창섭 부회장(KOGA) / 보고르 군수님 관계자 / 전조영 공사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 아데 야신 (보고르 군수) / 승범수 이사장 (코린도 사회공헌재단) / 함다니 전국회 의원 / 이순형 사무총장 (코린도 사회공헌재단)

코린도 사회공헌재단은 보고르군과 협력하여 지난 2019년 11월 30일에 보고르군 빠칸사리 운동장 (Stadion Pakansari) 옆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하였다. 녹색 협력 (Kolaborasi Hijau) 이라고도 하는 이 행사에서는 코린도 사회공헌재단 승범수 이사장, 보고르군 군수 아데 야신 (Ade Yasin),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전조영 공사, KOGA 안창섭 부회장, 보고르 한인회 이철훈 회장, 전국회 의원 함다니 (Hamdani), 코린도 그룹 임직원들, 보고르군청 직원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약 2ha의 도시숲 부지에서 2천 그루의 유칼립투스 데글루프타 (Eucalyptus Deglupta) 나무를 심었다. 2008년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매년 11월 28일을 식목일로 정했고 12월을 식목의 달로 정했다. 이번 기회에도 코린도 사회공헌재

단은 자연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코린도 사회공헌재단 승범수 이사장은 “아울러 작은 숲이지만 이 도시숲은 향후에 보고르군의 녹색 허파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보고르의 또 다른 지역은 물론 인도네시아 다른 도시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숲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아데 야신 보고르군 군수는 “코린도 사회공헌재단은 앞으로 3년동안 이 도시숲을 관리 보호해서 보고르군으로 이관시켜 주기로 약속함에 감사드리고 모든 보고르 주민들에게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라고 인사 말씀을 하였다.

공식행사가 끝난후 코린도 임직원과 보고르군청 직원들과 마을 주민들은 함께 나무를 심으며 보고르 도시숲 조성의 첫 삽을 떴다.

세계 속의 한국인,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입니다.

Koreans around the world: You are a South Korean voter.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To vote, you must apply or register by 15th February 2020.

2020.2.15.까지



신고·신청 방법 Method for Application or Registration

■ 인터넷 이용 (ova.nec.go.kr)
On the internet (ova.nec.go.kr)

■ 공관방문 / 순회접수
Visiting the official government office / mobile booths

■ 우편 이용 / 전자우편(e-mail) 이용
Through post / email

투표기간 | 2020. 4. 1. ~ 4. 6. (기간 중 6일 이내)
Voting Period | 2020. 4. 1. - 4. 6. (Duration of 6 days)

신고·신청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Apply and register quickly and easily on the internet!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ok.nec.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참고
Refer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verseas Voting (ok.nec.go.kr) 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websites for details and further information

!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별도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외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회(2016년 국선, 2017년 대선) 이상 계속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됩니다.

Those who are on the overseas voting list for the previous election may participate in overseas voting without additional registration. However, individuals who have not participated in overseas voting two consecutive times or more (2016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2017 Presidential Election) will be deleted from the permanent list.

전통놀이, 해학으로 감싸 안는 삶의 애환

놀이란 일과 대립된 개념을 가진 활동을 의미한다. 아이들에게는 일과 놀이의 구분이 모호하지만, 어른들에게는 비교적 뚜렷하다. 일에서 받는 강박감을 해소하고 피로를 풀기 위한 방법이 놀이다. 우리 조상들도 놀이를 통해 노동의 고통을 치유하고 삶의 애환을 달랬다. 이 글에서는 전통놀이 가운데 삶의 희로애락을 경험하게 해주는 윷놀이에 대해 조명해본다.

조상들의 한겨울 놀이

추운날씨는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놀이의 상당수를 불허했지만 대신 시간을 허락해주었다. 봄과 가을 농번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긴 시간의 놀이를 거의 매일, 그것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놀 수 있는 환경을 선사해준 것이다.

농번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여가시간을 얻게 된 어른들이 했던 대표적인 놀이가 윷놀이이다. 이 땅에 밭 딛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빼놓지 않고 한 번쯤을 해봤을 만한 대표적인 전통놀이가 바로 윷놀이이다.

신명풀이를 경험하게 해주는 놀이

4개의 윷가락을 던져 나오는 5개의 경우를 도(돼지亥), 개(개犬), 걸(양羊), 윷(소牛), 모(말馬)로 명명하고 각 경우마다 움직이는 칸 수를 정해 윷판 위를 이동한다. 윷판은 대체적으로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있으며 입구를 지나 ‘도’ 부터 시작해 윷판을 한 바퀴 돌아 입구이자 출구인 ‘참먹이’에 이르러 윷판의 세계를 벗어나게 된다. 보통 두 편으로 나뉘어 윷판을 돌아다니고 4개의 말이 먼저 시작점이자 끝나는 점인 ‘참먹이’를 통해 나오면 이기게 된다. 설명은 단순하지만 윷놀이의 세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던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던질 때마다 다른 경우의 수는 윷놀이를 불확실성의 세계로 인도한다. 하나의 말(‘동’이라고도 함)이 ‘도’를 시작해 ‘참먹이’에 오는 동안 수많은 고초를 겪는다.

인생의 축소판이라 해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다. ‘도’로부터 첫걸음을 떼면 서로 잡고 잡히는 일을 반복한다. ‘모’ 자리에 이르러 ‘모도’로 가기도 하고 ‘뒷도’로 돌기도 한다. ‘모도’로 가는 길이 가장 짧고 쉬운 길처럼 보이고 ‘뒷도’로 돌아가는 길이 먼 길처럼 느껴지고 효용성이 떨어질 듯 보이나 그렇지만도 않다. 쉽고 빠른 길이라 여겼던 ‘모도’에서 잡혀 죽을 수도 있고, 먼 길로 돌아가는 것 같은 ‘뒷도’의 길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으로 무사히 살아나올 수도 있다. 같은 편 말이 겹칠때 엮기도 하여(‘임신’이라고 말하는 곳도 있다) 긴박함과 아쉬움, 허탈함과 즐거움 등을 더할 수도 있다.

근시일에는 영어의 ‘Back’을 써놓고 ‘Back’을 포함한 ‘도’를 ‘Back도’로 명명하고 그 자리에 멈춰 한 칸 뒤로 무르게 한다. 근접전이 이뤄지고 있을 때는 ‘Back도’가 나오면 순간 윷놀이 판은 초긴장 및 초몰입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뒤쳐져서 패색이 짙던 말이 윷이나 모를 연속으로 하는 동이(‘사리’라고도 함)를 해서 상대방을 잡거나 아깝게 놓칠 때다.

하지만 윷놀이는 윷을 잘 던져 동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 던지는 일 이상으로 말을 잘 써야 하는 고도의 두뇌게임이라 할 수 있다. 윷놀이 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윷가락을 던지면서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지만, 말을 쓸 때는 같은 편끼리 종종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각각 생각하는 길이 다르고 현장에서 느껴지는 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승패가 결정된 후 상대방에게 패배의 원인을 찾기보다 같은 편 안에서 말을 잘 못 써서 졌다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한다. 재미있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말쓰는 사람을 정할 때 각 편에서는 머리회전이 빠르거나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맡게 한다. 이렇게 정해진 사람도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오면 같은 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윷놀이는 우리나라 설날 놀이의 하나로 정월 초하루에서부터 대보름날까지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4개의 윷가락을 던지면 5개의 경우의 수가 생겨난다. 사진은 모(말馬) ©이미지투데이

말판을 운영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는 공중말(건궁윷말)이라 감히 말할 수 있다. 공중말에는 말판과 말이 없다. 말을 놓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말판과 말이 존재하며 윷을 노는 사람들이 함께 거들며 놀이를 즐긴다. 공중말은 자기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쉬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말판과 말을 서로 보면서 말을 운영하는 재미는 그 놀이판에 몰입해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재미의 특별함과 이로 인한 신명풀이를 경험할 수 있다.



『김홍도필 풍속도 화첩』 중 나무꾼의 윷놀이 ©문화재청 윷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 재미있는 것을 왜 안 해?

지역마다 다양한 재질과 크기의 윷이 만들어졌고, 이 윷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를 즐겼다. 확실한 것은 실내·외를 가릴 것 없이 윷놀이가 겨울철에 전국적으로 행해졌다는 사실이다. 1936년 전국의 놀이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책으로 엮은 『朝鮮의 郷土娛樂』을 보면 각 지역에서 윷놀이를 하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화된 놀이였다. 윷놀이에는 개인과 개인을 넘어 둘 이상의 편과 편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놀이다. 이 윷놀이가 재미있고 승부가 어느 한쪽으로만 집중되지 않는 것은 윷이 가진 불확정성에 기인한다.

정해진 것이 없어 항상 대등한 승부가 가능하고, 조금만 더 운이 붙어주면 이길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 사람만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놀이가 아니다. 심지어 잘한 사람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협력하지 않으면, 누구 하나의 힘으로만 성과를 낼 수 없음을 보여준다. 모르긴 몰라도 긴 겨울 윷놀이가 마을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매일매일 긴장하며 동시에 희로애락을 겪게 해주는 중요한 재료가 되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겨울이면 이렇게 모여 과거에도 오늘도 윷놀이를 한다. “윷놀이 왜 하세요?” 하고 물으면 “이 재미있는 것을 왜 안 해?” 라는 반문이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아마 내일 또 그곳에 가면 윷놀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글. 홍사열 (사단법인 이음)

제공: 월간 문화재 사랑



Penjual Koran / loper koran (신문팔이 아저씨)
Bpk Yanto (55 세)

이곳 시장에서 신문 가판을 한 지 20여년 됩니다. 새벽 6시에서 오전 10시 까지만 신문을 팔고 남는 시간은 얼마 전까지 막노동하며 지냈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하겠네요.

지금처럼 인터넷과 핸드폰이 없을때는 하루 100-150부 팔아서 그런대로 괜찮았지요. 주로 주위의 상인들이 한부씩 팔아 줍니다. 지금은 기껏해야 하루 50부 정도 팔아 월 2백만정도 벌어서 그 범위내에서 삽니다.

많이 찾는 신문이요?

뱅크포파, 레빨블리까, 꿈빠스, 미디어, 람뿌히자우 그리고 주간지 노빠라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신문이요?

난 신문 안 봐요... 그런데 축구를 좋아해서 스포츠 면만 봅니다.

아~잘 알아요. 이번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한국사람이 말았지요?

잘 할것 같냐고요?

그거야 아직 모르지요. 한번도 시험 안 했는데.. 우선 동남아 챔피언만 돼도 좋겠네요 ㅎㅎ

-편집국-

2020 임원찬조금 납부명단

기준 : 2020.1.1.~ 1.30

번호	성명 및 직책	회사명	금액		비고
			루피아	달러	
1	채만용 자문위원	PT. CITRA BINA MAJU JAYA		1,000	
2	김동석 이사	PT. DUNIA TRANSPORTASI LOGISTIK	14,000,000		
3	구종율 자문위원장	PT. JASINDO DUTA SEGARA	28,000,000		
4	김종희 이사	PT. YOUNG JIN INDONESIA	14,000,000		2019
5	강호성 부회장	PT.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70,500,000		2019
6	김종화 이사	PT. ART MOLD INDONESIA	14,000,000		
7	이해왕 이사	LEE & OH CONSULTING INDONESIA	14,000,000		
8	김재정 이사	PT. ZEUS COMPONENT INDONESIA	14,000,000		

2020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 기준 : 납입일순

번호	성명	금액(IDR)	납입연도
1	채만용	300,000	
2	최석일	300,000	
3	김주형	1,000,000	
4	김동석	300,000	
5	최선명	300,000	
6	민정환	300,000	
7	김종희	300,000	2019
8	강호성	300,000	2019
9	이국청	600,000	2020-2021
10	박화선	300,000	
11	이원만	300,000	
12	정민수	600,000	2020-2021
13	김소웅	300,000	
14	전정우	300,000	
15	김종화	300,000	
16	이해왕	300,000	
17	김영실	300,000	
18	김영율	300,000	
19	조용재	300,000	
20	김창근	300,000	
21	김대근	300,000	
22	최성현	300,000	
23	현병순	300,000	
24	김재정	300,000	

[한인회 외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실명 위기의 김모씨(53세, 끌라빠가
딩 거주)에게 눈수술을 위한 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한인
회는 김모씨가 2016년 8월9일 출국하여 성모병원에서 수술
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인구조단(사단법인 월드케어)과 연계
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이렇듯 한인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한인동포들을 돕는 데 사
용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회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Y S M

인도네시아투자자문센터
YSM & PARTNERS 법률사무소

투자자문. 소송. 기업법무. M&A. 인허가. 부동산. 자원. 귀화. 지식재산권

대표변호사 이승민(YI SENG MIN, SH., MH.)
MP 0816-1911-245. yisngmin@gmail.com

무료 법률 및 투자 상담.Free Legal & Invetsment Consulting
-화요일 오후 2시-4시 Jakarta KOTRA(Tel. 021-5790-5230)
GKBI 8th Floor, Jalan Sudirman No. 28, Jakarta Pusat
-주일 오전 10시 15분-11시 45분 한인연합교회
Jalan Wijaya I No. 41,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Korea Center Building Suite 202-203
Jalan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Tel. 021-525-5959, 527-2422.
www.indonesialawyers.id

MATAARI

TOUR & TRAVEL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 연 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웍(KOWIN)	0815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 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 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 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 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 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 학교 (JIS)	750	3640
북국제 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 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 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 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 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 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 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TL
axow
세무회계

세무상담은 텍스트로
세무사/AFPK자격인증자 **이희영**
대한민국세무관련조력/비거주자,
거주자판단자문 등
대한민국세무상담 환영

• 주요업무 •
세무조사전문
조세불복전문
기장신고대리
양도상속증여
세무컨설팅

• 주요경력 (국세청 17년 근무)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근무
강서세무서, 영등포세무서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조사와, 법인세과, 재산세과 등 근무

(07807)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68 마곡747타워 602호(마곡역
6번 출구)
T +82-2-2662-7476
F +82-2-2664-7473
M +82-10-6599-7476
E taxlow7476@naver.com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끌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58	7650 6040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KANA 가나
RESTOLOUNGE

가나의 Special MENU

가나의
북요리
복
전문

가나의
Delivery Menu
도시락
전문

가나의
Catering Service
케터링
전문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1 Jakarta
Phone 2520077, 5710909
(KIM MI YOUNG 0811 918 132)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om@gmail.com T:(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visa.oromchris@gmail.com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우리투어

Tel : 021-794-0422 / 021-7919-9201
HP : 0811-1742-081
Katalk ID : uritour88
Email : master@uritour.org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데마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Tel:(021) 4587 8833 Fax:(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운)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9 555 3456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중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웅)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종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웅)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58 76506040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송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쥬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강식품/건강원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형사 · 민사 · 세무 · 투자 · 국적

김종성(변호사/ 대표Partner): UI대 법대졸, UI대 법대 대학원졸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한국건강원	5579 6411
솔진생크리아	7278 8287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차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방송사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	----------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클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 의사 정해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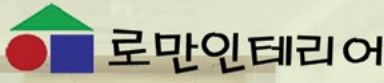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본점	722 2214
무궁화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뽕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젤레곤점	054-987 1049
무궁화반동점	028-200 1674
무궁화족자점	0815 4880 0256
무궁화마카사르점	0811 460 678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교민여러분과 25년을 함께 해 온
가구 인테리어 전문회사

로만인테리어

사무실/아파트/주택/매장/업소
공장/기숙사
가구, 키친세트, 인테리어
각종 리노베이션 상담

Showroom/Office:
Jl. RS Fatmawati No. 21A, Cipete Jakarta Selatan
Tel: (021) 766 2519 한국인직통 0811-847-699
카톡 ID: limbs521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김군

고기고기
밴드(김군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

데일리
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대감집	723	3315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	722	1852
소래포구	8990	5051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양가든	2751	7370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깍뚝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야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요리가	4584	4502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조선일보	2930	6886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시티안경원	726	5009
-------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레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18	4239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레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	9593111
-------------------	------	---------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	------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ICHTHUS
SCHOOL

PRIMARY | SECONDARY | PRE - UNIVERSITY

ACCREDITED
WASC

Scan for
Inquiry

OPEN HOUSE
Ichthus West Campus
Sat, 4 April 2020
Ichthus South Campus
Sat, 11 April 2020
www.ichthusschool.com

West Campus
T: +6221 581 2228

South Campus
T: +6221 7590 8850

Ichthus Schools
Ichthus School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수출·무역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복궁 하숙(리뽀찌까랑)	0813	1415 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둥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쉴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아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발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학원/교육업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에쎄드아트스쿨(리뽀찌까랑)	546	4531
예원	720	8783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	989 2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날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98	6112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DREMLAND TOUR	745	1961
KOURUS TOUR	744	72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AN TOUR	703	479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L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ANUR)	918	1888
부가	805	1212
한일관	727	250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ISIS (NUSADUA)	770	256
ISIS (SANUR)	287	257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BALI TEGEHE AGUNG	298	643
SUN JEWELLERY	761	537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파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반둥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둥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NITAKA TOKYO

hair salon

20%
First Time for Hanin Readers



@nitaka.tokyo
www.nitakatokyo.com
+6221 7278 8787
+62 8212 3003 809

2nd Floor Jl Gunawarman No 71
(near Senopati)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어떤 모양을 통해
목적한 기능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디자인의 본질 아닐까요?
디자인이라면 뭐든지 해결해드립니다!

PT.EOK ECO INDONESIA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경관조명 간판

- 디자인/설계/제작/시공 -
Tel. 021-7919-2426
M. 0852-8511-3888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전화번호 안내

시 내.....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001,008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 공항 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801
Toll Road

교통사고.....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021)692 8515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021)2967 2555

영사과.....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한인회.....021)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터미날3).....021)8082 2198/9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021)5098 6112
(공항).....021)5591 3229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123
전화고장 문의.....147
수도고장 문의.....021)57986555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지역한인회 주소록

현재 2019. 4. 29.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발리한인회	회장	윤 경 희	0811-385-841
		수석총무	최 경 희	0812-380-6288
		총무	송 학 자	0812-362-3000
		고문	김 갑 수	0811-394-552
		총무	손 민 석	0858- 5732-0669
2	반둥한인회	회장	편 대 영	0813-2145-7997
		사무국장	윤 재 웅	0813-1921-5720
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수석부회장	주 정 만	0812-704-5030
		사무국장	정 규 철	0812-701-6090
		총무	이 상 구	0821-7356-8405
4	보고르한인회	회장	이 철 훈	0811-112-179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메단한인회	회장	홍 상 철	0811-608-724
		총무	손 근 환	0812-655-9418
6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111-5208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7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수석부회장	김 태 현	0818-321-332
		수석총무	우 상 화	0817-500-1042
		총무	배 기 보	0812-3251-5518
8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회장	유 성 천	0812-2867-994
		수석부회장	임 종 학	0813-2525-7777
		사무총장	문 성 구	0811-275-080
		수석총무	양 재 삼	0812-9323-8002
9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유 치 호	0813-9251-5050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0	즈파라한인회	회장	김 신	0812-2991-588
		수석총무	조 영 성	0813-9032-3355
		총무	양 세 환	0822-2719-9135
11	망그랑반뜰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18-660-732
12	마카사르슬라웨시 한인회	회장	이 재 호	0811-444-190
		총무	한 정 곤	0811-419-200
13	룸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BE
THE FIRST
MOVER**



KMK GROUP